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文忠誠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金鍾燮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92호

〈주2〉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4년 1월 10일 월요일

1

교수공채 7.8대1

17명 모집에 132명 지원
건축공학과, 가장 높아

우리대학 94학년도 전임교수 신규공채 채용에 따른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7명 모집에 1백32명의 박사가 지원해 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개 분야의 전임교수를 채용하는데 62명이 응시해보았던 2.7대1의 경쟁률보다 3배나 높은 것이다.

전공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17개 모집분야 가운데 건축공학과와 건축설계 또는 구조분야는 1명 채용에 23명의 박사가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공업화학(지원자 17명) 유기화학(13명) 어류화학(9명) 등의 분야순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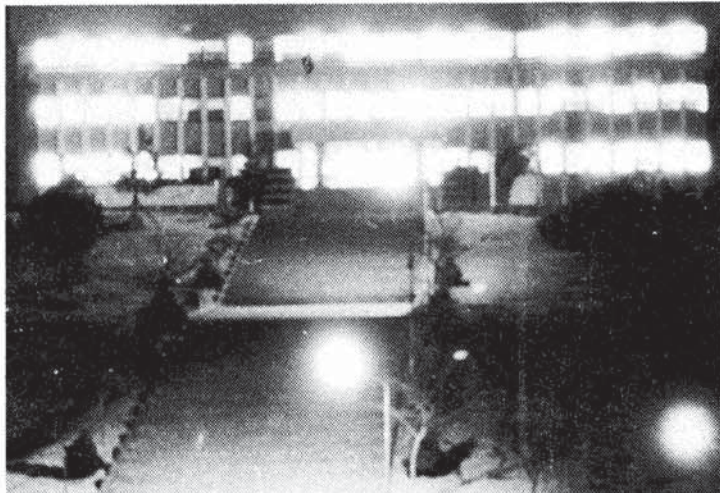
이처럼 전임교수 채용에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몰린 것은 응시자격을 박사학위 취득자(94취득예정자)로 한정시킨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8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내 대학원이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박사학위자의 양산과 해외유학으로 외국박사학위 소지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교수처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94학년도 전임교수 지원자 1백32명의 박사 학위 취득 대학을 보면 78명이 국내대학에서 13명이 일본대학에서 31명이 미국대학에서 4명이 중국 호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

이번호에 실기로 했던 제13회 백록학술상 수상논문은 지면관계로 3월초에 발간되는 신문에 실게됨을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대학운영 기본방침 확정 연구활성화·조직 개편방안등 7개분야 강의 평가제 도입 희망교수및 학과 대상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방학도 밤도 없다. (사진: 중앙도서관)

우리대학교는 자율적 개혁과 내부변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수월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운영의 기본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연구실(실장 오문우 생물학과교수)에서 발표한 '대학운영방침'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앞으로 △질적도약기반의 조성 △학술연구의 활성화와 특성화 추진 △학사관리의 강화와 대학교육의 유효성 증대 △교육연구여건의 개선과 지원체제의 강화 △대학 행·재정의 합리화 운영과 효과성 증대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출과 학생복지 향상 △교육환경의 개선과 시설의 확충 등 7개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 내용은 총장 인터뷰 참조, 4면)

우리대학교는 이 대학운영방침에 의거 92년에 확정된 학사부문 종합발전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UR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초로 대학내 각종 시설물의 합리적인 신설 및 재배치를 위해 시설부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결정, 그에 따른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을 의뢰했다.

우선 이번엔 마련된 대학운영방침에 따르면 지정학적인 면에서 비교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해양과 학분야와 관광개발분야의 학과에 집중 투자함과 아울러, 탐라문화연구소·아열대농업연구소 등 지역의

문화와 산업에 연계된 연구소에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분야의 육성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교육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강의평가제를 시행하고, 교수공채를 엄정관리하는 한편, 실험실 습교육에도 보다 충실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제를 도입, 우선 희망교수 및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학당국은 강의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및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평가내용은 강의내용의 보완과 개선 등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대학교가 이번에 강의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일부 교수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의 후진적인 연구·강의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강의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학내외 여론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에서는 연구풍토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을 비롯, 연구비지원 공모심사제의 도입과 함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수1인당 강의시간을 줄여나가는 한편, 교수연구부제도의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가중되는 졸업생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범대학적 취업지도지원

회의의 구성과 취업정보자료실 설치 운영, 산학협동체제 및 취업전문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 구축등을 통해 취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학금의 확충을 통한 재학생의 수혜폭을 넓혀 면학풍토 조성에도 진력키로 했다.

한편, 대학당국은 의과대학 신설 목표년도도 95년으로 설정, 그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의대신설추진위원회를 3월이전에 구성하기로 했다.

양순필 교수 학감 기념 논문집 봉정식 가제

74년 전임장사로 우리대학출장을 시작해 '조선조 유배문학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주도의 유배문학을 꾸준히 연구해온 양순필(사범대학장, 국어교육과)교수의 학감을 기념해 발간된 논문집 『어문학논총』봉정식이 지난 12월9일 논총간행위원회(위원장 문성숙 국어교육과 부교수·학과장)추천으로 오리엔탈호텔 2층 대회의장에서 있었다.

30년간 우리대학에 근무하면서 『국어교육론』(대학문화, 1985)을 비롯한 13권의 저서(공저, 번역서 포함)와 논문을 발표, 제주도유배문학연구에 공헌해온 양순필교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발간된 이번 논문집에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등 세분야에 걸쳐 3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94학년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94년도부터 휴·복학절차, 학위수여 등의 행정업무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또한 교양과목의 수강인원이 하향조정돼 교양과목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업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휴·복학절차

휴·복학업무가 각 단과대학장을 경유한 후 총장이 허가했던 것이 학장이 허가하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허가과정을 보면 휴·복학원제출⇒(학과, 경리과, 도서관, 예비군연대)⇒단과교무과⇒학장⇒총장허가후 학과에서 통보 하도록 했으나 그 절차가 처리기간의 지연과 행정력의 낭비등의 문제점이 노정돼 허가절차가 휴·복학원제출(학과, 경리과, 도서관, 예비군연대)⇒단과교무과⇒학장허가로 학적이 개정됐다.

▲대학원학점관리업무 통합

학적부 정본(재적생, 졸업생, 재적생 분), 학적부 마이크로 필름화 등 영구보존관리, 재학증명·학위증명·성적증명 발급,

재학생 성적관리 등 본부와 각 대학원에서 분산 운영됐던 업무가 학과에서 일괄 수행하게 된다.

▲학위수여권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위등록시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직인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던 것을 각 대학 총장이 학위증에 기재하고 수여하게 된다. 이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때도 적용된다.

▲교양과목 수강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

93년도 교과과정 변경과정에서 당초의 수강인원인 10명을 30명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93년도 1·2학기 동안 시행해 본 결과 30%이상이 폐강되는 등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지난 12월9일 학칙개정을 통해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폐강과목을 줄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교과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94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방학중 학사일정

▲1월중: 각 대학원 입학전형
▲2월8일: 제8회 졸업식(부속 중·고)

▲2월17일~18일: 94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2월21일: 제38회 학위수여식
▲2월21일~24일: 94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등록
▲2월중: 신입생 대학생활안내

늘하르방

내가 해야 할 일(?)

1994년이다. 90년대가 시작되게 었고 제 같은데 어느새 중턱에 와 있다.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온갖 유형의 시대가 예측되는 21세기 역시 몇 손가락 꼽지않아도 셀 수 있는 그 즈음에 와있다.

우리대학은 작년 6월에 새총장을 뽑

았다.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교수를 총장으로 뽑자는 여론속에서 선출된 총장이니만큼 각계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간 대학정책을 추진할 명확한 방법의 부재로 대두된 여러 사안들이 제4대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서로 얹히면서 고종장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총장 역시 나름대로의 포부 속에 '질적도약'이라는 단어에 특히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 본격적인 문제해결의 길떠날 재비를 하고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역대총장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늘상 강조하는 '질적도약'의 화두는 학교사정을 어느 정도 가능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자칫 오해를 할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질적도약은 내부적으로 튼실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의 일을 제 집안일인 양 애착을 갖고 임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학교의 학·처장을 비롯한 각 행정부서 책임자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짜잡아 매도하자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질적도약(質的跳躍)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러지는 말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감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다.

가령, 본지를 통해 수강신청 기간에 각 교과목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를 게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맨처음 얘기했던 때는 92년 3월이었다.

그 후에 3차례 더 얘기돼서 이 지침이 간신히 실행된 것은 93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때부터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침이 실행되기 위해서 3학기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휴학을 한학기기로 처리해 돼있고 우리학교 역시 엄연히 학칙에 휴학은 한학기단위로 처리케 한단말고 명시돼 있기에 한학기휴학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91년 11월이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서 한학기휴학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마냥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계절학기과목의 다양성문제만해도 그렇다. 이외에도 문제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새해를 맞으며 한 가지 학교당국에 말해 보고픈게 있다면 제도하나 시행하는 데 그 검토기간이 1년, 2년이 된다면 과연 우리 대학이 21세기를 대비할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을지, 또한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신화적인 업적을 남긴 아이아코카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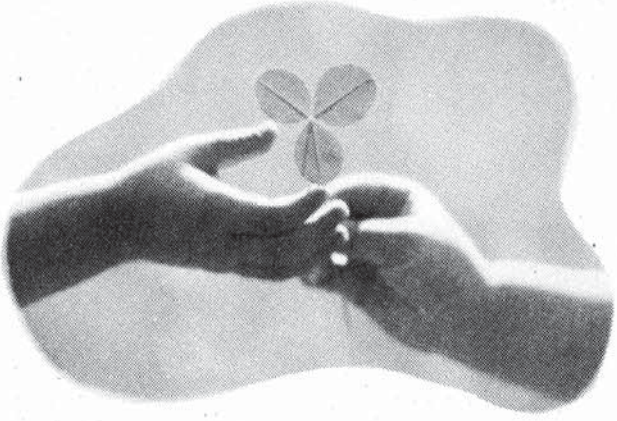
"평범하다는 것과 위대하다는 것의 차이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하는 감정이다. 구성원들이 이런 서로를 위하는 감정에 철저했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고.

아이아코카의 전언처럼 새해에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수는 학생을, 학생은 교직원을, 행정직원은 관료의식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고 서로를 위하는 데 몸을 사리지 않는다면 질적도약의 상태를 피부로 실감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해 본다.

[張]

身土不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대가 혜택을 보는 가족 보험 한울타리 공제

가입자는 물론 자녀, 고환의 부모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보험 — 한울타리 공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보험, 가족을 생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자 사고시 생활자금 지원
- 가족사고시 장의금제 지급
- 만기생존시 만기금제 지급

농민의 삶을 소중히 가꾸는
한울타리 공제

◇ 새해인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홍진혁 차기 총학생회장

새해를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밝고 힘찬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교정 아래에서 학술탐구의 열정과 조국사랑의 의지를 지닌 우리 청년아라민들에게는 밝고 희망찬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6대 통일대 집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홍진혁입니다.

93년 한해를 보내며 청년아라민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보다 유쾌하게 살아나가는 노력속에서 대학과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지한 삶의 애기를 주고 받기도 했었고, 도서관에 올라가 정신없이 전공서적

을 비롯한 여타의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학을 대학의 3주체인 교수·교직원·학생을 주인으로 세워 진정한 학문탐구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굳은 결의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4·3진상규명의 합성. 그리고 제주도농민들의 생명줄인 감귤을 지켜내려고 제주도민과 함께 했던 수입개방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청년아라민들은 자기 삶도 사랑하고, 학원사랑, 조국사랑의 한길을 황소처럼 꿰뚫고 묵묵하게 걸어왔습니다.

청년 아라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발전의 길이요, 정의를 지향하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이제 갑술년 새해는 청년아라민들이 깨끗하게 걸어왔던 학원사랑의 의지와 조국사랑의 열정을 모아 제주대학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렁차게 고가를 부르면서 대학의 발전을 약속하고 95년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의 밝은 내일을 예비하도록 합시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고충도 정책에 반영돼야



양복승 노조위원장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모두 성실한 마음자세로 건강한 일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과거시대의 흐름은 거칠고 모순으로 몇몇 위정인들에 의하여 혼탁한 사회질서를 보여왔다. 정치인, 대학교수, 지도층인사, 작금에는 군부까지도 썩어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이 민족의 장래는 어디에 기대를 할 것인가 할정도로 이 사회의 질서붕괴 생활태도의 부도덕한 혼탁한 기풍을 잘 보아 느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그때를 교훈삼아 새롭고 잘 살 수 있는 사회질서가 회복되어 마음놓고 일하며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아쉽

게 느껴진다.

'93년은 고통분담이라는 명제아래 힘없는 노동계층의 서러움은 고통부담으로 일관되었으며 노사문제에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내뱉"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 당했는데가 하면 소외계층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점진적 대책은 커녕 엄포선언 등 기를 펴수 없도록 세력위임을 가중케 한 것은 어려운 사람(계층)에게 현실을 외면한 오점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고 본다.

순리와 합리에 거슬러서 어떤 일이 행해진다면 거기엔 반드시 거칠고 폭력이 근원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어느대학 교수의 주장이 간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느 누구든 자기성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도층 인사들은 공정한 안목으로 미래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예지와 인간성이 결여되어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고충도 간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모든 구성원이 일체감을 일깨울 수 있는 비전책이 창출되어 도약의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소비조합식당에서

손발이 닳도록 소임에 열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식단을 마련하느라 애쓰는 아주머니들의 애로사항도 포용할 수 있는 도량 또한 중요한 일인 것이다.

계층에 대한 깊은 공이 하루속히 없어져 인간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대학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어 우리들의 진실을 찾아내서 서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기성회 노동조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의식을 고취, 수직관념에서 수평사회관념으로 형평이 조화를 이룰수만 있다면은 열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햇빛을 비출 수 있는 순리적 분위기에서 첨단사회의 방향으로 변혁되는 큰제기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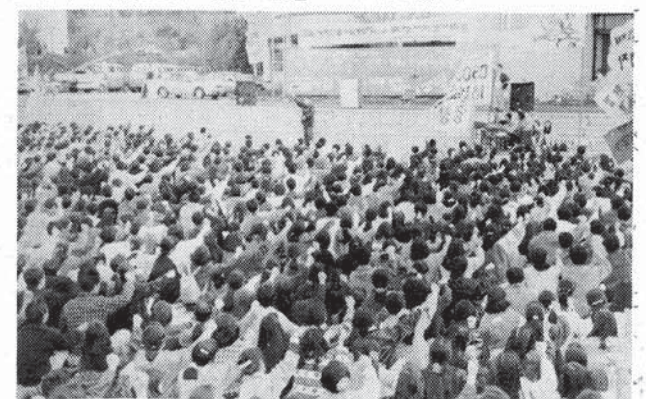
발전기금 조성
운동에다 함께
참여 합시다

매주 토요일 '반미의 날'로 지정
농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 전개키로

감귤 및 농산물수입개방저지를 위해 제총협을 비롯한 도내 재야단체에서는 94년 4월10일까지 미국반대, U·R 거부, 수입개방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작년 11월 말부터 있었던 '감귤 및 농산물수입개방저지' 투쟁내용을 보면 11월19일부터 8일 동안 오영훈총학생회장 등 중앙운영위 8명의 단식농성을 비롯해 △11월24일 '감귤수입개방반대 투쟁방법 채택결의' 총운영위개최 △11월 26일 관덕정에서 '감귤 및 농산물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제1차 범도민결기대회개최(감귤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민주단체 대책위원회' △12월1일 관덕정에서 '감귤 및 농산물수입개방 반대 및 김영삼정권의 사대굴욕외교규탄을 위한 제총협결의대회개최' △12월3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비상사국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개최(진보적 삶을 실현

하는 학생모임) △12월6일부터 9일까지 행정학과 현충원·강운삼 학우가 감귤수입개방저지를 위해 도서관 로비에서 단식투쟁 △12월7일 민자당 사무실 타격투쟁(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모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총학생회 한라리, 서귀포, 토산리 등지에서 감귤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주말농장을 전개. △12월13일 서귀포 일호광장에서 '감귤 및 농산물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제2차 범도민결기대회개최(감귤수입개방반대를 위한 민주단체 대책위원회) △12월14일 썬스몰물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민자당사무실 항의방문(총학생회) △12월17일 농협, 감협, 성산포 농민회 주최 '감귤수입개방반대를 위한 성산포집회' △12월25일부터 매주 토요일을 '반미의 날'로 지정해 오후 1시에 우리대학선전전을 갖는 등 감귤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11월26일 한라리에서 열렸던 '감귤 및 농산물수입 반대' 집회모습.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개설
신학기부터 행정대학원에

우리대학 행정대학원(원장 조문부 행정학과 교수)에서는 94년 3월부터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을 개설해 제주도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학원과정의 전문지식을 보급해 자기발전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가시키기 위해 개설되는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간부공무원과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과정과는 달리 6급이하 공무원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농수축협 임직원, 기업체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신학기부터 개설되는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제주도의 공직요청에 의해 개설되는 만큼 제정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도에서 지원하게 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리큘럼은 지방행정·재정, 지역개발·경제, 관광, 환경관리, 농수축산등으로 구성돼 있고 1년동안 32주(주2회)에 걸쳐 실시된다.

주2회중 1회는 행정대학원 주관으로 이론교육이 이뤄지며, 나머지 1회는 도사회산업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이 있게 된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의 모집정원은 50명내외로,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6급이하의 공무원과 지역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고 도의 협의와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지은이 양력

- 서귀포시 중문동 출생
- 제주대학교 국문과 졸업(1970년)
- 「문화춘추」지 문학상 당선(1966년)으로 등단
- 제주도문화상 수상(1991년)
- 한국문학 회원
- 시집: 「비바리 연가」 「서귀포 산조」 「정풍이」 등
- 현재: 서귀농고 교사

◇ 新年詩 아침빛 光明의 바다를 향해

-제주대 젊은이들에게

金龍吉

열려야 하리, 열라
그대들 가슴은
이제 새 날의 빛으로 뜨겁다
묵은 시간의 겹질을 벗어 던져라
낡은 세월의 바람을 태워라
태우고 나서 일어서라 아침이여

그동안 더러워진
방황의 잠 속을 헤집고
올라선 둥근 해
넘실거리는 빛무리를
파도여 감싸 안아라
두 발로는 거칠고 세상을 차내고
두 눈으로는 수평선 끝
맞닿는 하늘을 보라.

떠나야 하리, 떠나라
출범(出帆)은 언제나 새로워야 하고
항해(航海)는 힘차야 한다
깃발을 올려라
고동을 크게 울려라

낯선 기항지(寄港地)에서의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기꺼이 건너야 하는
그대들 괴로운 날이 있거든
맞아라, 맞아야 하리
그리고 풀어놓아라

진리(眞理)와 정의(正義)와 평화(平和)
자유에의 의지(意志)
지혜로운 사랑을
넉넉하게 풀어놓아라

이제 아침 빛 光明(光明)이
바다에 흘러 넘친다
모든 산야(山野)의 정기(精氣)가
바다로 물리고 있다
그대들 젊음, 청춘의 푸른 꿈들이여
저 光明의 바다를 향해
뛰어나가라, 나가야 하리.



“밝은언론 희망찬 미래”

도민과 이웃의 미래를 밝히는 참언론—
한라일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득담아 전하는 한라일보—
참다운 언론활동으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한라일보」의
미래지향적인 창간정신을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한라일보는 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과 이웃의 미래를 밝히는
진정한 도민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漢拏日報社

제주시 삼도1동 568-1 ☎(代)50-2114

서암농원 토초세 문제 일단락

제주세무서 지난 12월3일 과세 취소

우리대학 서암농원에 대해 제주세무서(서장 진병건)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던 문제가 지난 12월3일 세무서측에서 시정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제주세무서는 지난해 7월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고장권 총장)'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서암농원을 수익용 자산으로 관정, 유류토지로 규정하고 정산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해 상승된 서암농원 일부토지에 대해 토초세법을 적용시켜 1억2천4백40만9천5원의 과세를 부과했다.

이때 우리대학은 지난해 8월9일 토초세법의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를 제시해 문제의 과수원이 유류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주세무서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에서는 지난해 9월16일 심사청구를 기각시키고 7월12일에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우리대학에 발급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과 제주세무서가 팽팽히 맞서왔던 토초세 부과문제는 지난 12월3일 제주세무서측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농업수익사업용 토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며 서암농원 일부토지에 부과했던 토초세를 취소했고 우리대학에서도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제출했던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한편 토초세가 부과 논란이 일었던 과수원(서암농원)은 83년 고 김여중씨가 우리대학에 기증한 땅인데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현재 이 과수원을 장학금등의 지원을 위해 소유·운영하고 있다.

중양도서관 열람과(과장 김건일)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자료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서양서 4만8천6백권을 개가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그동안 따로 보관해 오던 기증도서들을 종류별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한 국내서 개가제 실시에 이어 서양서의(4만8천6백권)의 개가제 전환은 그동안 일부 서고의 개가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실시되는 것이다.

3월 개강과 함께 동양서를 제외한 국내서와 서양서를 개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대학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과 제주세무서가 팽팽히 맞서왔던 토초세 부과문제는 지난 12월3일 제주세무서측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농업수익사업용 토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며 서암농원 일부토지에 부과했던 토초세를 취소했고 우리대학에서도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제출했던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한편 토초세가 부과 논란이 일었던 과수원(서암농원)은 83년 고 김여중씨가 우리대학에 기증한 땅인데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현재 이 과수원을 장학금등의 지원을 위해 소유·운영하고 있다.

중양도서관 열람과(과장 김건일)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자료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서양서 4만8천6백권을 개가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그동안 따로 보관해 오던 기증도서들을 종류별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한 국내서 개가제 실시에 이어 서양서의(4만8천6백권)의 개가제 전환은 그동안 일부 서고의 개가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실시되는 것이다.

3월 개강과 함께 동양서를 제외한 국내서와 서양서를 개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대학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과 제주세무서가 팽팽히 맞서왔던 토초세 부과문제는 지난 12월3일 제주세무서측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농업수익사업용 토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며 서암농원 일부토지에 부과했던 토초세를 취소했고 우리대학에서도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제출했던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한편 토초세가 부과 논란이 일었던 과수원(서암농원)은 83년 고 김여중씨가 우리대학에 기증한 땅인데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현재 이 과수원을 장학금등의 지원을 위해 소유·운영하고 있다.

중양도서관 열람과(과장 김건일)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자료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서양서 4만8천6백권을 개가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그동안 따로 보관해 오던 기증도서들을 종류별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한 국내서 개가제 실시에 이어 서양서의(4만8천6백권)의 개가제 전환은 그동안 일부 서고의 개가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실시되는 것이다.

3월 개강과 함께 동양서를 제외한 국내서와 서양서를 개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대학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과 제주세무서가 팽팽히 맞서왔던 토초세 부과문제는 지난 12월3일 제주세무서측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농업수익사업용 토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며 서암농원 일부토지에 부과했던 토초세를 취소했고 우리대학에서도 제주세무서를 대상으로 제출했던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한편 토초세가 부과 논란이 일었던 과수원(서암농원)은 83년 고 김여중씨가 우리대학에 기증한 땅인데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은 현재 이 과수원을 장학금등의 지원을 위해 소유·운영하고 있다.

중양도서관 열람과(과장 김건일)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자료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서양서 4만8천6백권을 개가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그동안 따로 보관해 오던 기증도서들을 종류별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한 국내서 개가제 실시에 이어 서양서의(4만8천6백권)의 개가제 전환은 그동안 일부 서고의 개가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실시되는 것이다.

3월 개강과 함께 동양서를 제외한 국내서와 서양서를 개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대학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12월 22일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있었던 '아라호' 취항식 모습.

'아라호' 해양활동에 본격 돌입

지난 12월22일 여객선 터미널서 취항식 가져

우리대학 신조어업실습선 '아라호'가 지난 12월22일 고 장권총장, 우근민 전제주도지사, 유영환 교수, 학생·교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양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습선이다. 한편 아라호가 이번에 정식 취항함으로써 승선학과 학우들의 해가시 면허취득, 해양관련 학부, 교수, 대학원생들의 해양관측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조사 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농대, 25억여원 차관 도입

최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위해

우리대학과 농과대학(학장 오현도 농학과 교수)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IBRD로부터 3백2만4천달러(25억원 상당)의 차관을 도입한다.

이는 전국 12개 국립대학교 농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국립농학계 대학장협의회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계 현실극복방안의 하나로 지난 90년부터 진행해온 IBRD교육차관 도입이 지난 11월17일 조인됨에 따라 총 6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IBRD로부터 지원받는 6천만 달러의 차관중 △1천3백만 달러는 국립수의과대학에 △3천4백70만달러는 전국국립

계 농과대학에(사립대 1개 포함) △1천2백30만달러는 NICEM(전국농업 기초공공기기센터)의 창설과 운영에 쓰이게 된다.

우리대학인 경우는 농학계에 1백88만5천불이, 수의학계(수의학과)에는 1백13만9천불이 배정됐다.

IBRD가 교육개발을 위해 세계각국에 지급하는 교육차관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해서만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IBRD차관에 의해 배정된 전액을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는 데 차관의 60%가 교육용 기자재구입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농학계에서는 IBRD차관으로 △플라스마 분광분석기 △근적외선 분광광도계 △DNA입자가속장치 등 2백21종 2백75점을, 수의학계에서는 △레이저현미경 △엑스선 촬영기 등 1백23종 2백4점을 구입하게 된다.

한편 차관도입과 관련해 오현도 농대 학장은 "이번에 배정받은 차관은 교육부 기준인 이외의 기자재도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첨단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른 대학과 농과대에 비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개시설사업에 34억 투입

올해 외국어교육관등 완성

우리대학은 올해 33억9천만 원을 투입 90년도에 착공한 외국어교육관 및 상수도확장공사 등을 완공시키고 5개 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지난 7월 발표된 94년도 시설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90년 착공한 외국어교육관 신축사업 등 7개시설사업을 조기 완공시키기 위해 지난해 투자액 27억 7천1백만원보다 22%

증액된 33억9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외국어교육관 완성에 6억3천만 원 △상수도확장공사 완성에 1억원 △농대 부속가축병원 공사 2억5천만 원 △예술관(미술관, 음악관)골조공사에 4억2천만 원 △공대 C동 강의실 및 공동구 완성(실험실 제외)에 8억3천만 원 △해양대 5개층중 3

개층까지 골조공사에 3억4천만 원 △사범대 부속중학교 특별교실공사에 8억2천만 원 등이 투입된다.

한편 심한 균열로 붕괴위험까지 보이고 있는 용담동 구본관건물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구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지난해 초 건축계에서 보존을 위한 세미나까지 열린 적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홍익준씨등 6명 표창장 받아

93년 종무식서

새해의 학사행정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94년도 시무식이 지난 1월3일 오전 9시 법정대 중강당에서 전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공무원윤리헌장낭독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고장권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질적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학발전기금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후, UR개발으로 제주도지역이 경제적, 문화적 위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관 연합차원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우리대학은 산·학·관 연합체계속에서 제주사

회의 미래상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93년 한해를 돌이켜보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종무식이 지난 12월31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전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공무원윤리헌장낭독 △표창장 수여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종무식에서 종장표창을 받은 직원은 도서관 홍익준직원, 사무국 시설과 김정준직원, 교무처 수업과 오영조직원, 사무국 총무과 진태정직원, 법정대 김경순직원, 사범대 문화목직원 등 6명이다.

지하수관련 강연회 개최

남기영박사 초청

'제주지하수와 호주지하수의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가 우리대학 지역사회발전연구소(소장 고재건 경영학과 부교수)와 제주지하수연구회(회장 박양문 농학과 교수)공동주최로 지난 12월15일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 초청연사인 남기영(호주 빅토리아주 지질조사소 부소장)박사는 "제주의 지하수와 관련 그동안 조사·연구한 자료를 종합정리할 단계"며 "그 종합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각 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 이를 지역개발에 따른 판단기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도서관 자리 매진!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아마도 도서관을 매운 학우들의 열기 때문인듯.

오전 11시만 되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에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학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에 타대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서관 입구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학과교과, 교수의 이름을 대야 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고.

학우들의 학학열이 이렇게 높다면 아무래도 제2도서관을 빨리 짓는게 상책.

○...생트집

제주도 학원연합회에서 행정학과와 법학과에서 실시하는 영어특강이 불법이라고 주장.

학원연합회에서는 이들 학과가 학생회 주체를 빌자, 강좌를 개설해 특강

을 하기 때문에 시내학원의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터무니 없는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이 불법이니 뭐니 따드는 것은 학생들의 학학을 단순히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소인배(?)적인 태도라 보임.

○...인생도 재미수받을 수 있어? 재이수과목에 대한 구분표시가 큼지막(?)하게 표시돼 피해를 보게 된 학우들이 즉각 시정을 요구했는데 행

생트집

정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명.

경북대, 충북대 등 많은 대학에서 이미 몇년전부터 졸업생들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수과목에 대한 구분표시를 위해 있는데 우리학교에서는 절차상의 난항 때문에 아직 수용할 뜻이 없다고.

대학당국은 학생을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듯.

○...감금대학

일부 지방지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우리대학 농과대학을 감금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UR협상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줄과 같은 감금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도종합개발계획중 감금진흥대책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는데, 우리대학에 이를 연구해 하려는 것.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과 지역간의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특산물의 연구활성화는 우리의 과제라 봐야 할 듯.

○...다시 시작하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이 신임 도지사의 폭탄(?)선언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도민을 위한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계획안이 집행자들에게 의해 개발일대로 진행돼 중산간지역 등에 심각한 환경과 파괴가 예상됨에 따라 도지사의 재검토시기가 떨어졌다는 것.

그러나 여론의 불을 끄기위한 제스처가 아니라면 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을 위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듯.

상·경영학과 동문회

'동문회지'창간

우리대학 상·경영학과동문회(회장 현학수)에서는 '동문회지'창간호를 발간했다.

이 동문회는 현 경영학과와 전신인 상학과와 경영학과 출신들이 상호간 친목도모와 교섭활동을 위해 지난90년 결성됐다. 현 경영학과와 전신인상

도서 2,786권 기증

지난해 김승호교수등 6명

우리대학 '논문집 제37집'이 지난 12월18일에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눠 발간됐다.

인문·사회과학 논문집에는 양우진(영어영문학과)교수의 논문 '언어에 있어서 α-이동', 정대연(사회학과)교수의 '제주도의 계급주의'를 비롯한 21명의 교수논문이 실렸고 자연과학 논문집에는 홍양자(식물영양학과)교수의 논문 '제주지역 식생활 형태에 관한 연구', 김경연(전자공학과)교수의 '강의 수질오염 제어를 위한 계층적 최적 제어'등 31명의 교수논문이 실렸다.

지난 71년부터 제주제일청년회로부터 많은 동문들이 우리대학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으나 현재 도서확보율이 대학 설치령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국고지원금과 학교예산만으로는 대학평가기준에 달하는 도서를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며 "도서확충을 위해 각계에 공문을 띄워 도서를 기증해주시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수, 학생들이 먼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항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취항테이프절단, 시승, 선박소개, 선상실습 등이 펼쳐졌는데 예정됐던 해상퍼레이드는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지난 11월13일 제주항에 입항하여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아라호는 92년 3월부터 약 95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의 선미식 트롤 및 선명경용 어업실습선으로 총톤수 9백9십톤, 전장 68.5m, 순항속도 12.4노트(최대 14.4노트), 항속거리가 9천5백해리인 첨단 실

학과에서 1959년 상학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이후 69년 경영학과로 개편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총동문회는 1천3백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칙 및 임원명단, 동문회원 주소록 등을 실고 있다.

한편 이번 동문회지 창간호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려는 후배에게(강창식 11회)'등 7편의 자유기고와 회

□대학운영 방침—高長權총장에게 듣는다

21C 대비 해양·관광분야 집중 투자 조교임기제 폐지...RE제도 활성화

안팎으로 산적인 우리대학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력구제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고장권총장은 '질적도약의 기틀을 다지기위한 방안으로 취업초기 업무파악식 각 부서에서 건의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대학의 특성화분야, 연구소운영의 내실화, 강의평가제 도입 방안등 7개분야의 대학운영방침을 지난 1월4일 확정했다.

이에 우리대학의 미래지평을 열어나갈 '대학운영방침'에 대하여 고장권총장과 인터뷰를 통해,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본다. (위은이 씀)

대담 : 김중섭 기자

일시 : 1월4일

기록 : 김정훈 기자

장소 : 총장실

▲총장님께서는 '대학발전기금조성'의 틀을 마련해 대학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의 극대화를 꾀하고, 산·학·관의 연합체제 속에서 우리대학의 지역적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가 21세기를 대비해 건설한 대학으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도약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학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 총장님은 어떻게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십니까.

—인생의 청년기야말로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인생의 지혜와 힘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학생들의 고유한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아울러 우리대학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게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다수를 위해 질적도약에 힘쓰는 한편 교육·연구·봉사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대학행정의 통합화, 예산절감을 통해 대학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올해에는 기존 시설의 조기완공, 행정간소화, 연구활동강화, 의대신설에 대한 여건조성 등 세부계획을 착실히 추진할거야.

학술연구의 활성화 등 추진

▲다수의 합의'의 일환으로 학과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과장들이 우리대학의 미래를 짊어지 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급도 부교수 이상 가급적 교수급으로 구성되도록 '집행위규정'에 만들어 놔. 그 학과장들이 대학원 주임교수를 겸하도록 올해 3월1일자로 발령시킬려고 해.

정기 학과장모임은 학우회의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고 대학의 중요한 사안을 직접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나아가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신학기부터 회의를 직접 주재할거야.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얘기해 줄려고 그래. 물론 필요하면 학생들도 자주 불러 불만하거나 건의할 사항을 청취해 정책이 반영시켜 나갈 작정이야.

의과대학만 해도 그래. 전 대학이 돌돌 문쳐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데, 의대설립을 발의한 대학에서 투표해서 해서 겨우 통과하고 이래선 안되는 거야. 특히 투표한 교수들이 7천여 학생과 9백여 교직원을 대표하는 것 아니잖아. 그래서 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해.

교육연구의 지원체제 강화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지사가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대학이 발전해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어. 학교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면 땅이 움직인다' 말이 있듯이 있어야 돼. 발전기금이 모아져야 대학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필요시설·공간도 확보되는 거지. 학술연구라는 게 전부 돈드는 게 아니잖아.

▲자금을 위한 연구여건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교수간 선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쟁적인

연구풍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몇몇 대학에서 이미 강의평가제와 대학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장 실시하면 교수들의 반발이 심해. 그래서 학과별로 차츰 실시해나갈 계획이지. 대학평가가 이뤄질 경우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1년에 논문을 몇편 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또는 동료교수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학문에 경쟁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교수들에게 승진할때 반드시 외국학술지에 논문1편이상, 국내중요학술지에 2편이상을 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 그래서 자연계열은 비교적 수월하고 인문사회계열은 어려우니까 단위별로 실시할 예정이야. 나도 강의할 적에 자발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의평가를 받아봤어. 이제 교수들 스스로 또는 단과대학별로 자발적인 학문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연구비를 주면서 논문 한편 쓰시라고 하고서 같은 계열 학생,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모인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라 하면 실수를 하면 꼬집히게 되니까 더 노력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다보면 교수들 간에 학문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교수들의 강의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11.7시간에서 10시간으로 경감시킬거야.

▲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업적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차등제'가 적용되지는 않잖아. 지난번 서울대 몇몇 물리학과 젊은 교수들이 '교수정년제'를 반대하며 평가방식을 원한다고 진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직제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경쟁적 연구풍토라는 것은 지구촌시대에 맞춰 우리대학이 빨리 커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우리대학은 영원히 진흥속으로 빠져버리고 말거야.

▲국내외 학술 및 연구기회를 어떻게 확대해 계획하십니까?

—자연계열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국외 학술교류가 적어요.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려면 우선 발전기금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가령 1백억원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해마다 57개 학과별로 1명씩의 교수를 내보낼 수 있잖아. 물론 학생들에게도 선진국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 그래서 발전기금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거든요. 물론 시설분야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지.

올해 6억정도를 더 지원받아 약 33억원의 시설사업비가 책정됐어. 과거 국고예산 편성시 우리대학의 인상을 많이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면서도 일반예산을 1억이라도 더 끌어오도록 해야지.

▲기획 연구실은 우리 대학의 'main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추어 이의 활성화와 국제학술교류의 증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꼭에 힘입은 교수가 시설과에 가서 무얼 하나 더 자기학과를 위해 행진단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 그래서 또 교수가 강의실을 막아 연구실로 교수실로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학생강의실이 부족해 버리거든요. 수업과에 강의실 조정을 하다보면 강의실이 교수실로 바뀌어 있고 말야.

그래서 학교의 모든 공간을 기획실에서 통괄, 검토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어. 시설부문의 건축기사 1명을 기획실로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실직원을 늘려나가고 또 '사무관'급 과장을 '서기관'급으로 올렸지. 다른 부서의 과장은 서기관인데 기획실에선 사무관이던 계급적으로 높여놨어.

기획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담당과와 국제학술담당기획이 나뉘어. 올 인원조정시에 각 부서를 세분화할 방침이야. 그래서 모든 학술교류 및 연구비 책정, 해외 연구와 관련한 것은 기획실에서 통괄도록 했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소의 체제정비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국가출연·비출

Plan'을 만들어라 그래서 해양대를 특성화대학다운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

특성화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모든 교수가 많은 연구활동과 아울러 그에 따른 발전기금의 조성 이 시급하지. 물론 우리학교의 공용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해서 투자할 계획은 생각해본적 없어. 대신 정부에서 특성화대학 양성비가 별도 배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해양대가 특성화대학으로 자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하는 거야.

▲제주도의 전망이라든가 세계화의 흐름에 비춰 학과신설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생각으로 가급적 억제하고 싶어. 그러나 시대변화에



연연구소를 비롯 대학부속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 국가출연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이나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용역을 받아오기 위해 외부로 상당히 많이 뛰고 있어.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받아오는 연구분야는 활성화가 된다고. 지금 우리학교를 보면 소장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처음 1년은 하는 척 하다가 임기가 1년이 남으면 그렇게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소장도 연구소가 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박물관장도 그런 취지에서 유임을 시켰지. 연구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연구소장들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끌어와야 하거든요. 또한 연구용역을 맡아올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연구소에서는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그 연구소의 홍보와 연구분위 조성 등에 힘이되거든요.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한 것을 관련교수들 앞에서 일률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연구비 몇천 받았다고 적당주의로는 할 수 없어.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제대로 연구풍토를 조성하자는 거지.

▲장기발전계획상의 학과신설안은 유지하는 겁니까?

—우리대학에 철학과가 없으니 철학과를 인문계에 신설한다고 학사부문에 계획이 나와 있지. 철학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인생에 철학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학과신설의 궁극적 목적은 고급두뇌가 나오도록 유출되는 것을 유입되도록 하는 거지. 학후 도내의 무공해정산업 각 분야에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투입되면 보다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진학이 필수적 요소야. 그래서 꼭 필요한 학과는 신설해야지.

▲특성화분야에 대한 육성책 강구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지금 해양과학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됐잖아. 타 대학을 살펴보면 부산대의 경우 기계분야, 전남대의 화학분야, 경북대는 전자분야 이렇게 지정됐어. 우리대학은 관광경영학과와 탐라문화·아열대농업연구소도 특히 육성시키려고 그래.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대학은 자칫하면 후발대학으로 영리하곤 군주박질치고 말아.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대학에만 아주 특출나게 발전시키나가기 보다는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 만큼 거기에 따라 대학전반에 걸쳐 자발적으로 자구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할거야. 중이하지 않아요. 해마다 예산을 특성화대학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전제가 밑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학교는 해양과학분야가 특성화로 적절하지. 그래서 해양대 학장보고 특성화대학으로서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Master

□총장 신년사

‘질적 도약’기반 조성에 최선

교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여러분, 이제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할 사상은 한 마디로 '질적 도약'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인 연구, 교육 및 봉사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질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선행조건이 재원의 확보입니다.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통한 기금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활동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까지는 다각적으로 방법론적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

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봉사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의 기능과는 달리 간접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수들의 훌륭한 연구의 결과가 정책입안자나 산업 일선에서 이용되며, 또한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냄으로써 대학은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대학이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점과 연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필요성을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협상 이후 제주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 나아가서는 제주인의 삶의 질에 대한 위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후회적으로 우리 대학의 문제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방

정부나 기업가들, 동능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벽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산·학·관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 연합체제에서 우리 대학은 제주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및 실천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봉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성공적으로 '대학발전 기금조성'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대학본연의 기능인 연구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시작하고, 산·학·관의 연합체제에 대한 봉사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두 사람의 희생적 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대학교수원 모두의 강한 의지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함께 다짐하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재대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조교가 학과에 배치되어 있지. 그래서 연구조교는 교수연구 및 학과목 강의에 보조를 하고 있거든. 인문사회·자연계열에 모두 공통적으로 조교의 근본적인 업무는 'Research Education'(연구보조)'이거든. 그 R-E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해. 그래서 행정부서·도서관, 학생과 등에있는 조교를 모두 뽑아 각 학과로 돌려 보내서 교수들의 연구를 뒷받침하도록 할거야. 이제까지 조교가 하던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무직원들을 총원해 담당하도록 할 작정이야.

대학 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효과성 증대

▲직원의 충원을 하다면 현재 행정직원 축소방안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현재의 행정직원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

과거 수산학부장할 때 6개과가 있었는데 사무실에 직원이 둘 밖에 없었어. 복사기, 컴퓨터, 계산기가 없었어. 일일이 등사기로 복사하고 주판을 두드리고 해서 모든 성적표를 다 처리했지. 지금은 학생도 늘어났지만 업무는 고성능 사무기로 도입되면서 자동화되는 추세고 행정직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행정직원들의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발이 클거야. 그러나 조교는 전문인력인데 1~2년지나 조교가 일하면 타 대학으로 연차제한 때문에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채용원한도 없고 또한 본래업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더욱이 완전한 학문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교가 유능하면 조교를 교수로 승진시키자는 제도를 만들 작정이야. 시간강사로 박사학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강사 담당의 전체 강의시수 의존율도 15%이내로 축소시킬려고 해. 부족하면 타 지역에서라도 불러와야지.

▲학정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한다는 건 무얼 뜻하니까?

—참 곤란한 질문인데... 어떤 교수한테 어떤 과목을 어떤 학점이 '올' 나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 이런 말을 우선 채용하자고 한적이 있어. 그래서 상대평가면 상대평가를 구분해서 실시하면 좋겠어. 예를 들어 2백명, 3백명이 수강하면 어떻게 출석을 부르고 채점을 할 수 있겠어. 그걸 방지하는 의도에서 특정과목의 한 수강반에 70명내지 80명이상을 수용 못하도록 하고 분반해 강의하도록 할방침이야. 학기당 수업수수도 16주에서 17주로 연장 조정할려고 그래.

▲인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80명을 초과하면 그 다음은 A반, B반 이런식으로 하는 거지. 그 과목은 유지하되 담당교수를 더 늘리거나 해야지. 앞으로 '소단위 강의운영'방법을 채택해가지고

일반강의는 40~50명으로 축소운영 하도록 하고 자연과학실험실은 20명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찬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웃기는 학점을 안주거든. 편견없는 학점을 주도록 해야 돼. 학점은 교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아니야.

▲재이수 구분표시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학우회의에서 몇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내내로 확인을 못했어. 그 학적부 기록을 없애는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사관리를 축소하기 위해 모든 학부의 학적기록을 본부 학적과로 옮겨 올래는데 전부 이 동시기도록 했어. 컴퓨터에 모든 기록이 입력되면 F를 지울수가 있을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1회 졸업생까지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로서상이 많고 교무처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지. 그러나 개선시킬 생각이야. 타 대학처럼.

▲필부리부터 고치는건 어렵더라도 재이수 과목에 대한 구분표시를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다. 그것은 특별히 연구검토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게.

교육환경의 개선과 시설 확충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관이 아직도 부족한 운영기간도 짧다는 여론이 많은데 특히 후자와 관련 개선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도서관이 지금 비좁다고 해서 그린벨트내에 제2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설부처장을 비롯 담당과장을 만나 얘길 했어.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기관 소유의 그린벨트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땅은 가급적 많이 풀어줘야 이런 실정이지. 물론 우리대학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요.

사실 중앙도서관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자연계열교수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으려면 반나절을 꼬박 허비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편이 빨리 해소되도록 해야지. 취임후 도서관 자료열람시간을 밤9시, 10시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주요 보좌교수들과 의논했지. 하지만 인력 부족때문에 안된다는 거야.

▲어느 대학에서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학생을 고용해 야간당직자와 함께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돼 볼 수 있어. 단순히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책의 한페이지가 1세기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알겠어요. 아르바이트학생을 두면서 대출실에 기일별 2명씩 직원을 배치하든지 개

선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지.

▲올해 등록금에는 기성회비를 어떻게 책정할 생각입니까?

—학생회기부들을 타대학에 보내면서 그곳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검토해 보고자 했어. 학생수가 1만명 이상이면 대학을 운영하는데 기성회비가 상당히 보탬이 돼. 우리학교는 7천5백명밖에 안돼. 실정이라 타대학과 비교했을때 보다 더 등록금을 인

상해야 되는데도 다른 대학이 가령 7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학교는 65만원 정도 받거든. 그래서 감글수입 등 앞으로 당면한 경제압박을 고려해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다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학생들하고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어.

▲장학금은 어떻게 확충시켜 나갈 것입니까?

—올해 감글금원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9천만원 정도 들어왔어. 장학기금의 확충은 발전기금 모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장학해택과 학재는 우수한 학생의 유치에도 중요하므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내가 큰 줄기만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학처장들이 잘 할거야.

▲마지막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다면?

—아무리 대학의 시설이 좋고 우수한 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야. 물론 대학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부장자까지 오르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리를 쉽게 옮겨 버리거든.

이런 예도 있어. 제자가 부산서 찾아와서 추천을 부탁하길래 부산의 대동조선 회장보고 쓸만한 제자 보낼테니 채용하라고 부탁을 했거든. 그런데 그 제자는 간단히 해놓고는 다른데서 돈 몇천 더준다하니 그러고 가버리잖아. 약속한 회사에서 코빠지게 기다렸는데 안온다더라고. 그러면 추천한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장기야 돼버리거든. 애써 추천해줬고 한두달 근무하다가 땅파는게 낫다며 관뉘버리거나 하면 뒤에 남겨진 후배들은 취업이 더 어렵게 되잖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개선돼야 하는데, 교수는 열심히 가르쳐야겠고 학생은 열심히 배우야 해.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해 나가는 소임이라 여기고 있어. 이전 총장들이 하려고 했지만 잘 못하고 내에게 넘어오셨고요. 생각할 때도 있지. 한편으로 수월하게 이 자리를 맡고 싶기도 해. 하지만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내 인생의 마지막 정열을 바쳐볼 생각이야.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대학운영방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마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이수 표시

취업 전형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다른 대학선 표시안해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우리대학 학사관리규정에 의하면 F등급 외에도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은 학점에 관계없이 재이수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이수했을 경우 성적증명서에 재이수표시가 삭제되지 않아 학우들 사이에 특히 취업을 앞둔 3·4학년 학우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높다.

반면 강원대의 경우는 교내용 성적표와 취업용 성적표를 구분해 취업용 성적증명서에는 F등급의 과목도 표시하지 않고 재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도 재이수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경북대의 경우도 평점평균 산출시 F등급 성적교과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점수를 산출하고 재이수표시도 하지 않는 등 취업시 소속대학 졸업생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성적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대학처럼 F등급성적교과목을 평점평균에 포함시키지는 경우도 충북대 등에서는 재이수과목에 대해서 재이수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재이수여부를 표시

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재이수과목에 대해 그 연도가 표시돼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현준(법 4)학우는 "재이수 표시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불만이지만, 결국 같은 과목에 두배의 시간을 투자하고도 그런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하는가 하면 현예준(일본 2)학우도 "F등급이 아니라도 'B' 이하의 과목은 재이수해서 좀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재이수 표시가 남는다고 해서 어쩔지 꺼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재이수과목에 대한 표시가 성적증명서에 남게 됨으로써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학사관리규정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이수표시 삭제여부에 대해 학적과 고원일과장은 "재이수표시 삭제는 F등급성적의 교과목 삭제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F등급성적교과목을 삭제할 경우 전학년 석차가 임용에 중

요한 구실을 하는 사범대의 경우 불이익을 겪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F등급성적교과목 삭제에 관해서는 대학평의회에서 부결된 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범대생들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못하다. 또한 재이수로 인해 석차가 뒤바뀌는 것을 불이익이라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22일 열린 대학평의회에서는 F등급성적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할 경우 F등급을 받았던 과목을 재이수하지 않아도 됨으로 '학점 잘주는 교수만 좋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교수 경시풍조마저 생길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F등급성적교과목 삭제'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F등급성적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기록되는 현재도 학점 잘 주는 교수를 골라서 수강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F등급성적교과목은 삭제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진숙(국문 2) 학우도 "F등급성적교과목이 없어지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큼은 어차피 이수해야 되고 또 강의를 선택하는데 보다 자유로워질 것 같다"고 밝힌다.

학적과에서는 F등급성적교과목과 재이수표시 삭제를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충북대 등에서는 F등급성적은 기재되면서도 재이수표시는 삭제되고 있다. 또한 꼭 F등급성적삭제와 재이수표시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 F등급을 두어서 학우들의 자유로운 강의선택을 억지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강의평가제를 하루빨리 실시해 실속있는 강의를 없애는 발전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행정책임자들은 무엇이 면학풍토조성과 학생들의 앞날을 위한 길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 '재이수표시'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진명희기자)

수강신청 제도

타대학처럼 변경사유 확대

강의 들어본후 변경할수 있도록

새해에 우리대학이 수강신청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강 후 얼마간 강의를 받아본 다음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허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본사가 조사한 4개 국립대학중 강원대를 제외한 대학은(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변경조건을 두어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남대와 강원대가 수강신청의 취지에 근접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전남대는 개강해서 3주째 되는 기간에 변경을 실시한다. 즉 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주동안 강의를 받아보고 의도했던 바가 아니면 최소 2과목에 준해 취소하거나 추가신청을 허용해주고 있다.

본사가 수업과에 이렇게 할 것을 건의했을 때 수업과에서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수강신청이 마

무리했을 때 설강과목으로 확정된 과목이 변경기간에 폐강과목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전남대의 수강신청제도 운영현황을 참조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수강신청할 때와 또한 이를 변경할 때 둘 다 해당과목 교수에게 도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수강신청이 마무리됐을 때 21명의 학생이 신청해 설강

됐는데 변경기간에 3명이상의 학생이 변경하러 도장을 받으러 오면 서로 의견을 조정해 폐강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즉 이 학교에서는 교수가 설·폐강을 재량껏 조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대의 경우는 수강신청 변경률이 통상 80~90%가 된다고 한다. 이 학교가 변경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변경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개강 2주째되는 기간에 조금이라도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3과목까지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하다.

이 학교는 수강신청을 각 단과대에서 관리토록 하고 수업과는 이를 전산입력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학교의 수강신청 운영 사례를 통해 볼 때 거의 강의가 안되고 있는 개강 첫 주 강의

를 살리기 위해 개강하자마자 변경을 하고 있다는 수업과의 입장은 설득력이 미약하다.

둘째, 수강신청 기간에 강의계획서를 게시하는 일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본부 교과과에서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위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교과과정 개요서와 55개학과의 전공선택과목 강의계획서를 한데 묶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책자발행에 대한 확실한 여부는 94년 3월말에 94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됐을 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장신욱기자)

개가자료실 열람시간

밤 9시까지 연장

고조된 면학분위기 지속시켜야

도서관. 이용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자료실 이용자들은 퇴실준비를 하여주시시오" 오후 10분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녹음 테이프를 틀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린다.

여기 저기서 시간이 짧다고 웅성거리고 퇴실시간을 조그만 바달라고 사정하는 학우에게 내일와서 보라고하는 짜증섞인 직원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3월부터 도서관 서고를 폐가식에서 개가식으로 전환한 이후 도서관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도서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다. 이중 가장 큰 불만이 개가자료실이용시간과 신간서적부

족 등에 관한 문제이다. 서고를 개가식으로 전환한 이후 도서관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는 개가자료실 열람시간을 연장시켜 달라

는 것이다. 방학때인 경우 그 불만이 그나마 적지만 학기중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개가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공과대 강유진학우는 "중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적어도 한시간은 걸리는 데 공대에서 중앙도서관까지 갔다오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강의가 빠듯한 날은 도서관이용은 아예 엄두도 못낸다"고 하는가 하면, 인문대 김명숙학우는 "시험공부를 하거나 레포트를 쓰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료를 찾아야 될 경우가 자주 생기는 데 단련된 자료실문을 보며 막막해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면서 또 대체 자료실이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건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직원들의 경직된 모습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털어놓는다.

이외에도 개가자료실 이용시간이 짧은 데에 따른 문제점은 많다. 그중 하나가 대부분의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개가자료실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학과

이에 비해 타대학에서는 개가제 이용시간이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짜여져 있다.

서강대인 경우 학기중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전남대와 경북대 그리고 강원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동계시간 기준)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대와 경상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계시간 기준)개방하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5시이후에는 자료실관리를 아르바이트학생들이 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그날의 당직 직원이 맡는다. 전남대 등의 경우는 우리대학교 도서관이 1시간으로 잡고 있는 도서관정리시간을 20분으로 잡고 40분의 이용시간을 이용자들에게 더 주고 있다.

예년과 달리 도서관이 4학년생 뿐만 아니라 1·2·3학년생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학은 분명 새롭게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당국은 그에 맞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 개가자료실 이용시간에 연장여부에 대해 고유봉(해양학과 교수) 도서관장은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가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중이므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94년에는 달라져야

발전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학교가 지난 해보다 더 나은 대학이 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물음들은 새총장 취임과 함께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물음의 하나로 면학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에 꼭 달라져야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데 모아봤다.

(여은이 씀)



◇서고를 개가식으로 전환한 이후 도서관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개가 열람실 모습)

대학당국은 이 기회에 진부한 예기지만 도서관의 사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직시해 개가자료실 열람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개가자료실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퇴근시간 전에 하는 자료실정리를 다음날 아침에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서강대학의 경우처럼 자료실 담당 근로장학생을 두고 전체적인 책임은 그날 당직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보다는 자료실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갑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정제해 있는 행정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진일보하는 대학행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권록수기자)

휴·복학 제도

한 학기 휴학 반드시 허용해야

학기단위로 처리돼 있어 한학기 휴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서에서 한학기휴학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요인을 보면, 93년 11월9일자를 통해 이미 알린 바 있지만, 첫째 교과과정 운영의 혼란, 둘째 학사관리 및 모든 증명서의 혼란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교과목이 I·II, 내지는 I·II·III·IV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학기단위로 휴학을 허용하면 II면제 받고 I을 받는 등 교과과정 이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인해 학년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2학년 1학기에 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 학생은 2학년 1학기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3학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증명서에 학년 명시를 하는 데 곤란하다는 것이다. 관계부서에서는 한학기 휴학을 허용하면, 부모가 회사에 다니는 등 학생들이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데 이 학생들이 장학금수여에 따른 증명서를 받으려고 할 때, 학년표시를 모호하게 하면(장학금을 수여하는 회사에서 좋지않은 인상을 받아)학생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사가 장학실을 통해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조사

해본 결과 모두 14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를 통해 받는 학생수이고 실제로 본인에게 직접 수여되는 학생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관계부서가 한학기휴학을 실시하는 것에 정도 이상의 염려를 드러내는 것은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어쩔까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심하게 해본다면 회사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14명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전명정도는 될까라는 의문이다. 그래서 전명정도가 된다면 이 천 명의 학생이 증명서에 학년구분이 모호해 장학금을 받는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학교에서 한학기휴학이 허용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95년쯤에 한학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한 가지 거론해본다면 한가지 제도가 허용되는데 과연 4년까지 검토시기가 필요한가이다. 그것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염려하는 것은 남득하기엔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장신욱기자)

謹賀新年



새해 아침이 열렸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제주대학교의 도약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온 제대가족의
힘을 모아 이 시대 지성의
전당으로 우뚝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 총동문회

□ NAFTA·APEC을 통해 본 미국의 전략

NAFTA 통해 일본·유럽 등 부상 견제
APEC, 아시아국끼리 자유무역지대 결성 약화 시켜

I. 경제지역주의 대두

1990년대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의 하나는 전후 GATT체제를 기반으로 자유무역확대를 표방해 온 미국, EC 등 주요선진국들이 점차 지역주의(regionalism)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의 내지 경제블록화란 지리적 근접성, 공통된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국가간의 自由·無差別原則을 局地的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블록이란 단순한 경제協力차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 회원국간 최소한 完全特惠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경제關係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는 그 결속도에 따라 自由貿易地帶-關稅同盟-共同市場-經濟同盟-完全經濟統合의 5단계로 나열된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종식후 國際關係는 경제적인 요인의 비중이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世界主義와 地域主義의 동시적 진행 속에 세계는 유럽, 북미, 동아시아의 3대經濟圈으로 다국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제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GATT체제의 UR협상에 임해 온 반면, EC, NAFTA 등을 통해 인접국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체제 결성을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있다.

II. NAFTA·APEC의

추진배경과 내용

NAFTA는 기본적으로 美國, 캐나다, 멕시코 등 北米3국이 EC統合, 소련·동구 등 共產圈의 붕괴, 일본의 경제력 급성장 등 세계경제질서의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地域的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또 경제적으로 볼때 미국의 技術·資本, 캐나다의 資源·技術, 멕시코의 人力·資源 등 3개국의 經濟構造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어 통합에 따른 國內産業發育가 비교적 작은 대신, 분야별 域內交易 및 投資擴大를 통한 고용 및 성장촉진 등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금년부터 발표되는 NAFTA는 인구 약3억7천만명, GDP 6조5천억불의 세계 최대 經濟圈이 되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AFTA는 내용이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조약으로 앞으로 15년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관세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유로이 이동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상품거래의 自由化를 위하여 향후 15년에 걸쳐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즉 總去來品目的 약65%에 대해서는 협정즉시 또는 5



김태보
경제학과 교수

년 이내에 關稅를 철폐하고, 섬유와 의류부분의 關稅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며, 농산물 등의 경우는 10~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域內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타도 10년내로 전부 없애게 된다.

둘째, 原產地規定을 강화하였다. 域外國 기업들의 北米 現地組立工場을 통한 우회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域內 關稅혜택의 기준이 되는 原產地 規定을 강화하고 있다. 예로서 자동차의 現地部品使用比率를 금년부터 50%에서 8년안에 62.5%로 높여 경쟁국가의 對美 輸出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APEC의 설립과정을 보면 다소 완만하게 추진되어 왔다. APEC이 태동하기까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간에 非政府차원의 地域協力 추진과정이 있었다. 1967년 太平洋經濟協力會議(PBEC)가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순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기구가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당시 경제보다 安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경제협력관계는 강력하지 못하였다. 1980년 태평양안안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설립된 것이 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PECC)이다.

그러나 脫冷戰 이후 GATT의 多者間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 및 地域主義가 대두되는 등 급격한 국제경제환경변화에 의해 亞太地域국가들이 공동대처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격 대동하게 된 것이 APEC이다. APEC은 1989년 1월 호주의 호크수상이 정무간 협력포럼의 창설을 제안한 이후 역내국가간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호주의 캔버라회의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한·미·일·캐나다·호주 및 아세안 6개국이 참가한 제1차 각료회의에서 亞太經濟協力の 방향 및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협력체의 개방성 유지, 域內의 다양성 존중, 합의에 의한 협력추진 등 9개항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APEC이 경제협력기구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3·4차의 각료회의를 통해서였다. 3차 서울회의를 통해 APEC의 목표와 활동범위를 규정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중국·대만·홍콩이 가입함으로써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제4차 방콕각료회의에서는 APEC 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상설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제도를 도입, 국가별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등 진일보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4차 각료회의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미국이 클린턴의 집권과 더불어 아시아중심정책의 일환으로 APEC을 중시하게 되었다. 곧 미국은 등 막대한 재정적자, 높은 실업률, 재정장 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외시장 확대에 의한 수출증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亞太地域의 경제적 역동성은 미국의 이러한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아태지역은 미국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5차 시애틀회의는 APEC정상회담으로 격상되고 APEC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新太平洋共同體(New Pacific Community)의 창설·구상을 시도하고 있어 본격적인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III. 미국의 전략

미국은 NAFTA, APEC을 통해 國際的인 國內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GATT 및 IMF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多者間 自由貿易體制를 선호해

왔다. 미국은 1980년대 들어와 대외적으로 국제경제질서의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財政 및 貿易赤字 등 構造的 問題에 직면해 있는 自國經濟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절실히 됨에 따라 NAFTA결정 등 經濟協力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은 1980년대초 GATT에 의한 농산물, 서비스분야에 대한 多者間 自由貿易擴大가 실패하는 등 GATT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汎世界的인 自由貿易化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자유무역이 가능한 國家와 地域에서부터 자유무역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하여왔다. 또한, 미국은 UR등 多者間 自由貿易體制 구축을 위한 협상을 보완한다는 전략에 따라 域外國에 대해 지역주의추세의 심화속에서 多者間體制에 불참할 경우의 불이익을 실감케하여 UR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하였다.

둘째, EC통합을 계기로 급진전하고 있는 유럽經濟統合(EEA)과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증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미국은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國際經濟的地位 및 교섭력을 강화시키자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NAFTA의 결성으로 경제 규모와 인구면에서 EC를 앞서는 北米經濟圈을 형성하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남미국가들을 포함하는 汎美洲自由貿易地帶을 형성하려고 한다.

셋째, 대내적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自國經濟의 회복과 産業競爭力 강화에 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技術, 資本,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캐나다의 資源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分集體系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협정당사국간 比較優位에 바탕을 두고 미국은 서비스 및 첨단산업, 멕시코는 노동집약산업, 캐나다는 자원관련산업을 중점육성하는 産業構造의 고도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NAFTA를 통해 북미경제권을 형성하여 나아가면서, 이와는 별도로 유럽,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하여 太平洋안안국가로서 APEC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APEC의 4차회의까지는 미국은 UR협상과 NAFTA타결에 주력함

無 論 有 說

농민과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과 개방화라는 그럴듯한 옷으로 치장하고, WTO라는 새로운 무역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GATT의 UR은 몇가지 절차만 남기고 타결되었다. 그 동안 찬성과 반대, 불가피론 등 많은 말들이 오갔고, 지금도 진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영국과 포르투갈이 각각 아마포와 포도주를 생산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영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아마포 생산에 전문화하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만을 생산하여 서로 무역을 통해 교환할 경우 양국의 경제적 후생은 교역 이전보다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비교우위론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상한 이론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유무역론의 결과가 이번 UR타결이다. 그 결과 우리도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자동차 등을 부지런히 생산해서 팔고, 비교우위에 있는 농축산물을 들여와 우리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하는 기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비교우위론에서도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농업자원을 어떻게 할 것

인가 하는 문제만을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좋다고 맞장구 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농촌,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생각해두 우물거리기만 하다.

이런 비교우위론의 현실성 여부, 그리고 우리 농촌문제를 차라리 더더러도 그렇게 낙관할 수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 UR의 기본전제는 EC나 NAFTA 등과 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이로 인한 보호무역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협상과정만 보더라도 결코 양과는 달리 힘 센 나라들의 내전은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 고 하는 농부심보와 같은 논리가 그대로 관통되고 있어 왜곡된 교역구조의 완화 및 무역의 공정성을 그다지 낙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협상의 성과를 보면 힘 센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의 완화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시장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더 큰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WTO라는 새로운 무역기구를 설립하여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기구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새 기구의 규칙이 슈퍼 301조와 같은 국내법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규칙으로 개도국 또는 경쟁상대국은 개방시키되 자국시장을 혼란시키면 언제든지 국내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WTO체제에서도 결국 힘의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어 WTO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어려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이런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새해에는 신명나는 화제가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업경제학과 강동일】

으로써 APEC의 발전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제5차 시애틀회의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對外政策上 국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APEC을 활용하려고 있는 바, 이처럼 APEC을 중시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APEC을 강화시켜 무역, 투자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自國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GNP의 50%를 차지하고 당분간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미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自國의 경기침체나 무역적자 등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자는데 있다. 특히 미국은 경쟁력이 높은 금융, 통신, 서비스부분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면 유리한 입장을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수상에 의해 제안된 EAEC의 결성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다. 곧 아시아국가들끼리의 독자적인 자유무역지대결성에 대한 구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은 아세안과 일본과

의 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이 배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EAEC와 같은 아시아지역에 독자적인 기구가 형성되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APEC을 적극 발전시키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UR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제5차 시애틀회의를 통해 APEC의 위상을 각료급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킴으로써 UR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21C의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APEC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新太平洋共同體(NPC)의 창설을 제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5차 시애틀회의는 경제공동체로의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단순한 협력체의 단계에서 공동체 방항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APEC가 EC나 NAFTA처럼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장래에 대해서는 속단하기가 힘들다고 하겠다. 그 이유를 찾으면 첫째, 域內國家들의 경

제발전단계가 현격하게 상이하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 둘째 역내국가들의 産業構造는 상호보완적이기 보다 경쟁적이라는 점, 셋째, 경제적으로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일본에 대한 인접국들의 거부반응 등이 지역경제통합의 부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IV. 결론

UR협상타결에 의해 세계경제는 최근 Globalism과 Regionalism 즉 국경을 초월하는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상호보완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NAFTA를 통해 EC, 일본 등을 견제하며 국제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APEC을 통하여 UR협상타결이후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타결분야중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타결된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은 APEC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APEC은 투자확대, 기술이전확대, 인적자원개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지역주의적인 성격의 기구를 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謹賀新年

올해 창립 1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제주대학교 동문회’는

항상 모교와 함께 합니다.



갑술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교의

진취적 기상을

기대합니다.

고문: 김창호(법학과) 강세원(법학과) 김남식(상학과) 고광훈(축산학과)
회장: 고두승(법학과)
부회장: 임현순(상학과) 정영우(중식학과)
감사: 고수영(농학과)

총무: 김기홍(식품공학과)
재무: 한보규(회계학과)
간사: 전용택(법학과) 강승준(경영학과) 고용식(경영학과)
운영위원: 이승용(중식학과) 이종수(농학과) 현태섭(원예학과) 김은철(중식학과) 고혜영(독문학과)

UR과 제주도의 생존전략-관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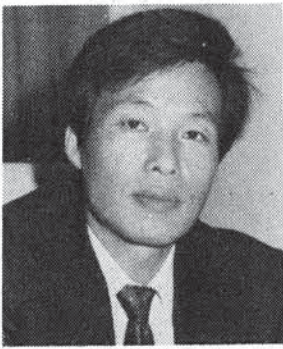
관광을 둘러싼 복합산업과 환경변화에 대비
제도개선·시설 국제화 해야

I 미래의 사회

1982년 네이비트(J.Naisbitt)는 그의 저서『대변혁(Megatrends 2000)』에서 미래의 사회를 국가경제체제(national economy)에서 세계경제체제(world economy)로의 전환과 패색적이고 지속적인 단위 국가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적이고 상호존적인 세계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이미 미래학자들에게 의하여 예견했던 세계경제체제로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세계무역을 영향을 주었던 GATT가 행정협정으로서 강제력 구속력이 없었던 데 비해 GATT를 대신해서 발족하게 된 WTO(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의 비준을 요하는 국제조약으로서 문제발생시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으며 GATT의 46개국에 비해서 117개국에 합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경제가 구속받게 된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각국정부는 시장기능만을 적용할 수 없는 부문이라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부문도 수입금지나 시장진입규제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비교적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생존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던 한계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의 다른 방법이 없다. 생존경쟁도 국내경제의 틀이 아닌 세계경제의 틀속에서 치루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외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은 부문은 자연히 도태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산업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국가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에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실시예정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지역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야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이 97년 부터는 완전개방이 약속되어 있다. 감귤개방은 농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이는 제주도 산업의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여건하에서 개방화, 국제화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1976년에 벨(D. Bell)은 '탈산업화 사회의 도래'라는 저서에서 탈산업사회에서는 금융, 보험, 교육, 여가산업 등과 같은 지식 및 서비스산업이 중심산업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기업중심에서 미래의 사회에서는 지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최병길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다. 지금 세계는 벨이 예견하고 있는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제주도 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관광산업 가운데 앞으로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리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II URI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광산업은 여러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즉 URI에 의해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관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요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URI이 관광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의 1차적인 목적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협상 참가국 모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이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때 이들의 흐름은 시장기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생산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상품가가 비싼 지역으로 유입되어 생산지에서는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증대와 판매시장이 있는 곳에서 물가하락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소득증대

는 분명히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소득증대는 해외여행을 고려할 때 제주도 여행에 긍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비용을 포함해서 관광에 관련된 모든 요인은 변하지 않고 소득만 증가했다가 가정했을 때 내국인의 여행성향을 보면 해외여행과 제주도여행 중 해외여행의 비중이 높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외국서비스문화의 도입은 서비스산업에 충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즉 비즈니스부문에서 외국문화가 들어왔을 때 문화적충격(culture shock)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관광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네이비트의 말을 다시한번 인용하면 '2000년도에는 세계는 하나이고 문화시대가 열린다'고 하였다. URI은 경제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는 각국간의 문화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내세워서 자국문화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심어 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상과 문화를 파는 것이 관광산업이라면 세계가 하나라는 2000년도에는 자국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상품화하면서 외래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로 전환될 것이며, 이와같은 추세는 관광개발이나 관광산업에도 적용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기업들을 위축시켜왔던 행정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에 대한 행정규제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민간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 아직은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지만 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현재보다는 많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 축소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에서의 노사문제, 지역사회와의 문제, 매스컴과의 관계개선, 관광개발과 환경문제를 등재하는 조정 이상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힘들과 관계자

들간에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URI을 통해서 관광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사회변화를 들 수가 있다. 사회변화는 궁극적으로 여가의 형태나 관광의 형태 그리고 관광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등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의 구조변화는 많은 이농인구로 인해 도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외래문화의 파급은 전통적인 동양의 가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결국 사회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요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통신 및 컴퓨터 분야에서의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 주는 정보화사회(Toffler)는 탈산업화사회(Bell)와 함께 미래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진보는 세계를 더욱더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가정의 자동화, 출근이 필요없는 재택근무, 원거리 회의나 강의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더욱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소득의 증대, 교통 및 통신수단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지역간 거리의 축소, 여가시간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복잡성과 사회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등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여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URI의 타결은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세계 기업을 상대로 치루어야 하는 경쟁이나 그리고 비교적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III 개방화시대의 대응방향

URI이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관광지와 관광지, 동종의 관광기업간 그리고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남아 있다. 사회시스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은 비교적 다른 산업의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이다. 따라서 URI이 가져오게 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응해야하는 시급한 시점에 와있다. URI이 최종적으로 타결을 볼 때까지는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으나 끝내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의식수준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점에 와서야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비도 없이 낙관적인 사고만이 전체를 지배했다고 보아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모든 것이 정해진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수도 있겠지만 성공과 실패는 바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의 경우 결국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제주도 관광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의식이 국제화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식의 국제화란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에서 그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관광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그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관광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그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의식의 변화는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직접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대중매체의 힘을 이용한 사회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은 일종의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관광주체와 관광객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과의 접촉 또한 관광활동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관련 업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층속에서 그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관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

람에게도 간접적 효과의 혜택을 입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광객에게 자연스런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관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의식교육, 관광교육 이외에 중요한 교육은 외국어 교육이다. 개방화가 되면 외국사람과의 교류가 많아지리라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은 국제화의 무기이다.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체관광객이 아닌 외국인 단독으로 여행을 하는데는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제도의 개선과 시설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 관광객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저해하는 부문이나 조직의 발전적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부정적 행태들을 과감히 철폐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관광개발과 관광문제에 대해서도 민의 역할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관은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시설의 경우도 내국인 중심에서 국제수준에 이르도록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통시설, 도로의 표지판, 관광음식점, 관광호텔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물론 관광정보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국제수준의 정도도 레벨업(Level-up)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화를 보존하고 창출해야 한다.

관광지의 가치는 관광시장과 관광목적지간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의 문화가속지문화와는 다른 특색성 때문에 그리고 동양과 서양사회의 커

다란 문화적 차이때문에 높은 여행지출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관광이 이루어진다. 경제전쟁 이후에 찾아올 국가간의 문화전쟁에서, 상품의 교류를 통해서 서서히 침투되고 있는 외국문화 앞에서, 그동안 오랜기간을 두고 형성되어온 제주도의 문화가,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왔던 전통문화가 더이상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어떻게 관광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 노력, 홍보, 애프터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대고객 서비스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광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방화는 그 대상이 세계기업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화시대는 정보의 시대로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전쟁을 통해서, 선진화된 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노사간의 관계개선, 매스컴의 효율적 이용방법, 조직의 개편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등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생존과 도태가 결정될 것이다.

다섯째, 배타주의나 고립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형성되었을지도 모르는 폐쇄의식이나 배타주의, 고립주의는 개방화의 최대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계기는 유혹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본을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적극적인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가능했다. 지역자본 위주의 관광개발은 규모와 경제성이나 제주도의 자급자족도를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간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외환관리법의 철폐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살 수 없다. 개방을 위해서는 의외지나 외국인의 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를 세계인과 섞여 살 수 있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된다면 제주도는 항상 세계인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만 모든 것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앞장서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세계로 나가야 한다. 아니 제주도 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화는 물론 인젠가는 찾아올 관광자원면에서도 대국인 중국관광이 붐을 이루게 될 때 그리고 통일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거시적 관광정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謹賀新年

21세기 제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뛰는 사람의 땀방울은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나누며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협동과 믿음의 경주는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밖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수성을 알리고 안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제주시의회 제주대학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수료자 일동



의장 현태식(제 1기)



부시장 홍석빈(제 2기)



산업건설위원장 백점근(제 2기)



운영위원회 간사 이봉만(제 2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수(제 2기)



의원 김상홍(제 1기)



의원 임오중(제 2기)



의원 문종민(제 2기)



의원 장수천(제 2기)



의원 홍신생(제 3기)



의원 이환우(제 3기)

UR과 제주도의 생존전략—수산분야

무분별한 채취는 갯녹음 가속화

바다목장화 시대로 탈바꿈해야

□ 제주도의 중요성

제주도는 중앙부에 우뚝 솟은 한라산의 백록담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항상 흐르는 하천은 없으나 광범위한 산림지대에서의 산수는 지하수가 되어 해안각처에서 용출되고 있어서 각종 서식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도서는 유인도 9개와 40여개의 무인도가 산재되어 있으며 2백53km에 달하는 연안은 굴곡이 적은 편으로서 내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양식시설에 의한 활용수면이 전무한 실정이나 섬의 해안선 일대가 일부 모래밭을 제외하고는 암초 또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정착성 생물인 전복, 소라, 성게를 중심으로한 유영어패류의 천적적 호식식지를 4백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 및 군생태학적 조사는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산관리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동·남·남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대만, 일본과 대외교와 있어서 2백해리 해양 분할시대와 UR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해저석유 및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수산자원 면에서는 4백척에 이르는 중국의 어선세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는 국토 보존면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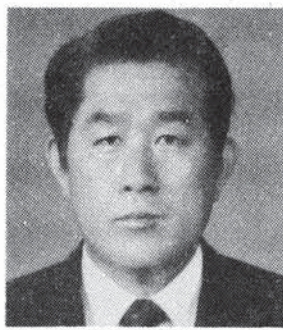
□ 해녀가 지켜온 바다

제주도 전복에 대해서는 1053년 고려 문종시대에 해조등과 같이 해산물에 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과 수산물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전복1개의 무게가 3kg이상의 것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무궁무진한 바다의 보고인 전복 어장이 피해를 받게 된 것은 1880년 4월경 일본 나가사키현 근처에서 잠수기어선이 침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잠수기어선의 침입으로 남획을 맞게 된 전복은 1903년에서 1913년까지는 1백60톤내외의 1973년부터 1백60톤내외에서 1980년대에는 60톤으로 감소되고 있고 요즘에는 통계조차 어렵게 되고 있다.

소라는 1932년 1천9백34톤, 1949년 2,725톤, 1966년부터 1988년까지가 대체로 2천톤내외였으나 1981년부터는 일본수출이 호조되어 1985년까지 3천톤을 약간 상회하여 과잉채취와 여러 원인으로 자원량은 감소되어 1988년 5백48

제주도에 판매했다고 1884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침범한 일본 잠수기어선은 1백20대였으나 1910년경에는 이미 한일합병에 힘입어 4백대가 침입하게 됨으로써 본도 일대의 황금 정착성물어장은 황폐하게 되었고 1912년에는 1백20대로 감소되어 금어기를 제정하는 등 보호책을 강구하였으나 이미 어장은 철저히 황폐되어 종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후 1940년경부터는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식량증산이라는 구호아래 마구잡이 포획으로 남은



변중규
농수산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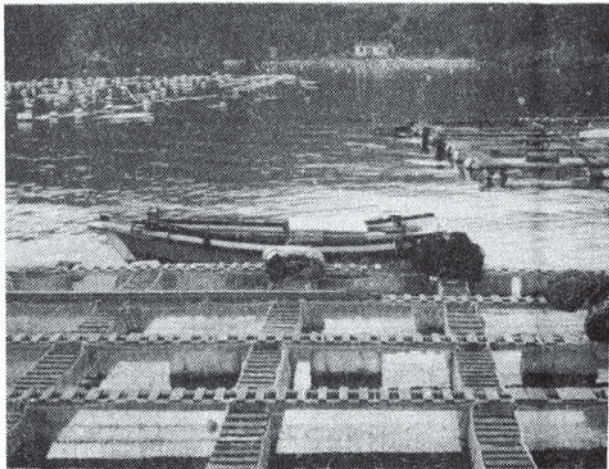
자원조차 고갈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인은 1980년에 제주도의 잠수기어선을 없애야 된다는 건의를 강력히 한 바 있으며 1990년에는 도수산과의 노력으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1916년에 구좌면에 어업조합(수협)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제주도에 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된 것은 1920년이며 1936년에는 어업조합과 해녀어업조합을 합병하여 제주도어업조합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제주, 모슬포, 서귀포, 김녕, 부산 등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해방후 1948년 2월에는 제주도 어업연합회가 조직되었다.

□ 제주도 전복, 소라, 해조류 생산

전복은 1932년에 3백톤, 1940년 2백6톤, 1953년에서 1072년까지가 1백60톤내외의 1973년부터 1백60톤내외에서 1980년대에는 60톤으로 감소되고 있고 요즘에는 통계조차 어렵게 되고 있다.

소라는 1932년 1천9백34톤, 1949년 2,725톤, 1966년부터 1988년까지가 대체로 2천톤내외였으나 1981년부터는 일본수출이 호조되어 1985년까지 3천톤을 약간 상회하여 과잉채취와 여러 원인으로 자원량은 감소되어 1988년 5백48



◇이제는 수산 새로운 과 학영역의 시 대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

톤, 1989년 4백40톤으로 감소되었으나 1992년에는 9백92톤으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조류 생산을 언급하기 전에 해조류의 대부분은 상기 전복, 소라, 성게 등의 먹이생물로서 이러한 생산은 중요 정착성물의 먹이를 채취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생산이라는 좋은 뜻만을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꽃생선은 1958년부터 1980년까지 4천~6천톤 내외가 채취되고 있었으며 미역은 1957년부터 1971년까지 대체로 3천톤에서 2천톤정도가 채취되고 있었으나 1968년에는 6천6백40톤으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미역은 육지쪽의 인공양식 성공으로 그 가격이 하락되고 과잉증산됨으로서 1979년 이후는 자연히 채취가 중단되었으며 이것은 동시에 전복, 소라, 성게증산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우뚝가사리는 1965년에서 1974년까지는 대체로 5백톤내외로 채취되고 있었으나 1977년부터는 2천톤대로 증가되고 있어서 이 또한 소라새끼의 초기먹이로나 소라, 성게의 중요먹이로서의 남획과의 관계가 걱정되기도 한다.

갑게가 채취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이며 1977년부터는 2천톤대로 오르고 있어서 이는 당시 알긴산 공장에 납품하기 위한 어민소득 향상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무계획적 바다자원관리가 오늘날 갯녹음(풀이 없는 목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커다란 원인이 아니었다면 생각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밖에 기타 해조류생산으로서 1965년에 약 9천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약 2만~3만톤이 채취되고 있었으나 오늘날 갯녹음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당시의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짧은 소견때문에 바다를 황폐화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단기적인 어촌지도 계획은 그 귀중한 바다의 먹이생물을 없애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연안바다는 의외로 갯녹음현상이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바다의 해조류는 이제 다시 우리가 몇배의 경비와 노력을 들여서 이식하고 양식하여 海中林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갯녹음(풀이없는목장)의 원인과 그 대책

본인은 제주도 수산과의 요청으로 1981년에 제주도 일대 연안 증식개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 본인은 제주도에서의 수산증식 양식 면에서 전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 太古로 부터 시초인 것을 알고 하느님에게 감사한 일이다.

수심 15m이내의 제1종 공동어장과 조간대의 얕은 곳에서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 조류나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풍우나 기상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갑게가 채취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이며 1977년부터는 2천톤대로 오르고 있어서 이는 당시 알긴산 공장에 납품하기 위한 어민소득 향상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무계획적 바다자원관리가 오늘날 갯녹음(풀이 없는 목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커다란 원인이 아니었다면 생각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밖에 기타 해조류생산으로서 1965년에 약 9천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약 2만~3만톤이 채취되고 있었으나 오늘날 갯녹음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당시의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짧은 소견때문에 바다를 황폐화하는 커다란 잘못을

인터뷰—감귤UR대책소위 위원장

살아남는길...품질개선본

감귤UR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인 백자훈(원예학과)교수를 방문하여 감귤수입개방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감귤UR대책소위원회의 활동상황은?

—그동안 감귤UR대책소위원회에서는 두차례 농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민의 집약된 의견인 감귤수입개방반대를 강력히 전달하고, 만일 수입개방이 될 경우에는 쿼터량을 최소화하고 관세를 200%로 최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월8일에는 감귤협동조합장과 함께 직접 제네바까지 갔다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UR협상이 완전 체결됐으므로 앞으로는 기획단에서 감귤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향을 소위원회와 UR대책추진위원회에서 논의, 확정지어 나가게 된다.

△우리가 감귤의 국제경쟁력은 어느정도로 예상되는가?

—현재 제주도 감귤종 15~20만톤이 가공용 감귤로 사용되는데 95년부터 5만톤씩 수입되는 농축주스의 가격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종전의 가공용 감귤을 소비자에게 그냥 팔게되면 공급초과로 우리 감귤 값이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가공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OM방식의 수입, 수출방

법도 있으나, 이는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공업 부분에서의 경쟁은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자훈교수

그리고 95년부터 수입되는 1만5천톤의 네블라 바렌사라는 오렌지는 제주산 감귤과는 다른 독특한 맛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고장에서 소비하루를 이용하면 재배가 가능하고, 가격을 산출해본 결과 수입오렌지는 1kg당 2천2백원에 공급될 것으로 추측되는 반면 현재 제주산 하우스 감귤은 그보다 4백원이 싼 1kg당 1천8백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면에서도 우세해 경쟁해볼 만하다.

△감귤수입개방으로 인해 발

생되는 문제해결 방안은?

—지금은 UR협상이 완전 체결된 상태이므로 감귤수입개방반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제주산 감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구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중간상인만 터무니 없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제주도 농산물만 취급하는 매장을 만들려고 해도 농수산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농민들을 위해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에서의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대학차원에서 대책은?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대학의 하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우리대학내에는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 일컫는 감귤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빠른 시일내에 감귤연구소를 만들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

□ 바다목장화 계획의

추진과 과제

이제 바다는 수렵시대를 지나서 길러서 잡는다는 시대로 이미 깊숙히 추진되고 있다. 바다 목장화란 바다를 중요 수산생물의 발생

에서 수확까지를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어업시스템을 말하는 뜻으로서 우량종묘 만들기, 환경개선과 환경보존을 하자는 것으로서 인류 생존을 위하여 미래어업의 기본적 기술체계이며 해양생물자원에서 식량을 지속적으로 계속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고생산어업의 실현으로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989년도부터 남치양식이 성공하여 1993년에는 3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아·패·조류의 종묘생산 및 양식기지화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근래에 와서 제주도의, 연안 바다는 인구증가에 의한 도시오수와 자동차, 선박, 소규모 기업에서의 유류 및 폐수유출, 축산배설물, 농

약, 자가오염 등에 의하여 오염지수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오염물과 집중호우 등의 일시적 집중 대량유입에 의한 연안의 오염물질들은 육상에 가까운 곳일수록 그 피해는 위험도가 커져가고 있다.

일부 전복, 소라, 성게 어장에서 전복은 기하 그 자원은 재생능력인 암수가 수중에서, 산란, 방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있는 수중 수정능력의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소라와 성게는 서로가 해조류의 먹이경쟁을 조절하지 못할 때 곳곳에서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게는 소득이 좀 적다고 채포(숙음)를 해주지 않을 때 그 번식력이 막대하며 해조류의 새싹까지 전멸시키고 만다. 특

히 제주도에서는 말뚝성게는 잡지 않는 곳이 많으나 실제 동해안에서는 말뚝성게가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오게 됨으로서 어민들은 인공성로 생산의 배후를 받기위하여 종묘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게는 너무 밀식되어 있으면 생식소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가치성을 잃게되는 것이다. 채포(숙음)를 해주고 적당한 서식밀도를 지켜주어야만 충분한 먹이를

먹고 소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科學營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촌계 어장내의 먹이인 해조류를 계절별로 정확히 조사하고, 이 먹이의 경쟁자인 소라, 전복, 성게, 오분자기 그 밖에 각종 무척추동물 그리고 시기별 변화에 따른 이들 채포대상어종들의 자원량을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해조류량에 맞맞는 적정생물량을 기르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갯녹음 어장은 일단 소득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바다를 황폐시켜나가는 성게등을 일단 전부 채포 제거한 후에 해조를 이식하는 등 새싹을 보호하면서 이들 해조의 번식을 기한 연후에 적정량을 이식하는 등 바다의 경작을 다같이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는 어촌계원은 바다에서의 소득은 자연히 감소되고 바다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서 바다에 해조(풀)를 심고(海中林 造成)수산종묘(씨앗)를 뿌리고 해적을 구제하고 양식장(논, 밭)을 갈고 가꾸는 새로운 科學營漁의 시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다같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진컴퓨터학원

확!!!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 하세요
더 이상의 학원은 없습니다.

※삼보 486 컬러 시스템 30대 추가 설치

※전기종 하드디스크 장착

※전강의실 프린터 완비

※수년간의 강의경력자들의 철저하고도
책임있는 교육

“학원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위치 :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교육과정안내

OA 기초과정

OA 전문과정

NORTON유틸리티
·WINDOWS
CLIPPER
C Language
PC-ASSEMBLY
오 아 시 스

정보처리과정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과정

워드프로세서 김정 대비과정

각종 시험대비반 과정

정보처리 이론, 실기 대비반
워드점점 이론, 실기 대비반
사무정보기기 응용기사 대비반

TEL. 22-6811, 6812

“English is a Tool of Success.”

BOOKS · VIDEO · CASSETTES & MAGAZINE

時事英語研究

英語世界

AUDIO
Magazine

時事英語研究

オーディオ
マガジン

TOEIC · TOEFL · L/C · ENGLISH STRUCTURE · 영어회화 · 일어회화 등
100여종의 다양한 내용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학에 관한 한 시사영어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시사영어사 제주지사

문의전화 (대표) 57-1844, 53-7587
(FAX) 52-1865

*매년 신학기만 되면 시사영어사를 도용한 교재, 급조된 교재, 영세업자의 출판물들이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학교재 선택은 공신력 있는 회사의 교재를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UR과 제주도의 생존전략—농업분야

1·2·3차산업 복합화해

농촌형 관광·휴양사업장 창출시켜야

1 제주지역의 농업적 특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大地의 기초가 '節理構造'로서 滲水機能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가 Monsoon下的 畠作風土에 알맞는 지역이면서 제주만은 畠作이 아닌 田作의 風土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田作地帶를 형성—田作—雜穀文化를 기지로 살고 있다. 둘째로 제주는 연평균기온이 서울보다 3℃, 最寒月(1월) 평균기온은 8℃가 높아 아열대성의 주요 인자가 되고 있어 暖地農業에 특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따라 60년대 초부터 이른바 경제작물—고구마, 유채, 맥주맥의 주산지들이 이루어 加工原料로서 수입대체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월동채소류—양배추, 당근, 극조생 양파, 잎마늘, 감자, 기타 양채류의 산지형성이 촉진되어 12월—4월간 주요 공급지역화를 다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바 크다.

반면 도서성에서 오는 隔絶性은

생산물의 출하에 해상수송이 추가 돼 이를 부담하고도 견딜 수 있는 즉 비교우위성이 있는 농산물을



강경선
농경제학과교수

생산하여야 하는 한계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溫暖性에는 자연독점적 촉진요소이며 隔絶性은 비용추가적인 제한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溫暖性을 이용, 자연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代表的

作物인 감귤을 비롯하여 고구마, 감자, 유채(이미 개방), 맥주맥, 맥류·콩, 참깨, 양파, 마늘 등 모든 주요 농작물에 개방이란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과거에 겪어왔던 3災—旱災, 風災, 水災는 어쩌면 우연적이며 순환적이어서 회복성이 있었지만 현재 불어닥치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질풍노도는 무한대·무차별이어서 疾風勁草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리할날을 세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국제무대에 航進할 수 있는 內在力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의 暖地農業은 우리나라 유일의 보배로운 것임을 재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주의 관광·휴양사업도 이 속에서 꽃이 피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주의적인 관광산업에의 편향주장은

은 배격되어야 한다.

2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른바 비교역적 관세(NTC)관련품목인 15개 기초 농산물의 UR협상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품목은 온 국민이 한결같이 관세화 예의를 절구했지만 예외없는 관세화(=자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 쌀: 관세화 10년간 유예. 단 취소시 잠정허용(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증량하여 99년 2%수입, 2000년 국내소비량의 2%에서 매년 0.5%씩 증량하여 2004년 4% 수입).

• 보리, 고구마, 감자, 콩: 95년 개방, 최소시장 접근(95년 소비량의 3%에서 2004년까지 5%로 증량수입)최소시장접근물량은 20~30%관세적용, 그 이상의 물량은 국내의 가격차, 관세 상당치 부과(예컨대 고구마인 경우 95년 428%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385%로 감축 그러나 관세상당치는 10년간 10% 감축), 다만 콩은 현행 시장접근 현재수입량인 1,032,152톤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수입.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95년 수입자유화. 고추, 마늘, 양파는 최소시장접근 95년 소비량의 3%에서 2004년까지 5%로 늘려 수입,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Ceiling binding 관세적용(현행관세+100%한도 내외의 관세), 예컨대 양파인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

량은 50%관세 적용,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95년 150%에서 2004년 135%로 감축 적용.

• 감귤류: 生果 Orange 97년 7월 수입자유화, 95년 1만5천톤, 96년 2만톤, 97년 2만5천톤에서 97년 이후 2004년까지 매년 12.5%씩 증량 2004년 5만7천17톤 수입, 한국형 감귤(온주류를 포함하는 만다린, 탄제린 계통) 등은 95년 1천2백58톤에서 2004년까지 2천97톤으로 증량수입, 관세를 보면 쿼터당에는 50%,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95년 99%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50%로 감축, 한국형 감귤류에는 95년 160%에서 2004년 144%로 감축.

• 오렌지주스: 이른바 농축액 97년 7월 수입자유화, 수입쿼터설정—95년 5만톤, 96년 5만5천톤, 97년 1~6월까지 3만톤 수입.

이상 요약 살펴본바 같이 우리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국내 보조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비교적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대상 총액의 13.3%를 앞으로 10년(1995~200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의무를 지고 있다.

3 이제 UR의 결과 농업에 있어서도 「國際化 時代」라는 키워드를 회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부터 음미해보자.

위에서 본 UR의 결과는 농산물

에 있어서도 국제무역의 자유화 실현이다. 지금까지의 國境保護措置는 예외없는 관세화로, 국내보호 조치(보조금, 가격지지등)는 점진적인 감축(10년간 13.3%)으로의 대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농산물 국제시장에서의 자유경쟁화와 국내시장에서의 자유경쟁화가 連動하여 진행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에따라 농업경영은 비용경쟁(주로 생산비 경쟁 및 유통비 절감)에 대응하여 대폭적인 생산비절감을, 또 한편에서는 품질경쟁에 대응하여 고품질화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니까 商品質·低價格·特異性의 전략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면 기술·경영·유통·조직을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이러한 혁신을 우선 지역농업·농촌에 적용시켜 보면 농업구조, 농촌생활구조, 농촌지역조직구조, 농촌자연자원구조를 再編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농업구조 하나만 살펴보면 농업경영구조—경영규모, 경영조직, 자본구조 등, 농업생산요소—작목구조, 생산기술체계 등 농업생산요소 구조—토지, 노동력, 자본재 등, 농업조직구조—농업생산(자)조직, 판매조직, 농업조정조직 등, 농산물 유통구조 등을 획기적으로 재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 예로 감귤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자)조직 및 행정지원 조직재편을 보면 95

년부터 수입되는 생과 오렌지 수입권과 농축액수입을 담당할 수 있는 수송태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柑協을 개편하여 미국의 Sunkist(캘리포니아 및 아리조나주 감귤협동조합)에 상응하는 조직제도를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감귤류의 수입·수출 및 가공 전담기구로서의 육성이다. 또한 地方行政體에 감귤과를 신설하여 지원체제로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의 산하연구기관인 제주감귤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직속의 생산기술, 경영, 유통, 해외정보, 수출, 가공 등 감귤에 대한 종합연구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로서는 농민—농촌분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개발과정에서 도민의 주체적 참여의 개발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다. 농촌에 다양한 취업의場과 농업관련 가공산업 및 농촌형 관광·휴양 사업의 場을 창출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으로써만이 농업·농촌을 軸으로 하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복합화라는 집중강세의 발전방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제화라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여 농업·농촌·농민의 力強의 길은 제주지역전반의 끝없는 Innèvation, 그리고 또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

UR과 제주도의 생존전략—축산분야

정예축산농가육성

비용절감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시급

격동의 한 해를 잠재우고 94년이 밝았다. UR이 타결되면서 유행병처럼 번진 단어가 '경쟁력'이다. 세계에서 이제 2등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1등자본주의시대이다.

우리앞에 바짝 다가선 '개방의世紀'는 우리에게 寸刻의 餘裕도 주지않고 있다.

세계는 가트체제를 대체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全지구적규모의 개방世紀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개방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제와서 개방이나 폐쇄의 명분론을 거론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아 보겠다는 徒勞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역사적 대세에 순응해 국가의 생존역량을 키워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과 국제화·개방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상황에 제주인 특유의



강민수
축산학과교수

전환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창의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제주 미래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국민

총생산액중 농림어업부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축산부분의 비중은 70년 5.5%에서 81년 7.2%, 91년 11.8%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조수입중 축산조수입 비중도 70년 6%에서 91년 19.3%로 증대되고 있어 축산업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89년 이후 축산물수요의 증가로 축산물가격이 비교적 강세를 유지해 왔으며, 사육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아직도 부업형태로 축산을 영위하고 있다. 92년말 축종별 전업농 비율이 한우우 0.2%, 젖소 5.0%, 돼지 20%, 산란계 및 육계 21%로서 사육규모확대가 필요하다.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과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강화로 축산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격의 주기적인 급등, 급락으로 양축경영 및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이

다. 또한 유통시설이 낙후와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신을 유발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축산물에 대한 차별화 시책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료부문에 있어 조사료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배합사료는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외국축산물이 국내 반입이 확대되어 검역 및 위생관련시설과 인력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93년은 국내축산업계가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이뤄진 변화가 가져온 많은 시련과 도전속에 냉엄한 국제경쟁시대를 마치고 속령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축산물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시작됐던 축산농가수의 감소추세는 93년에도 예외없이 드러났고 지속됐다.

92년 9월말 현재 93만2천호로 조사됐던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사육두수는 작년 9월말 현재 87만3천호로 조사돼 1년새에 무려 5만9천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감소한 가축사육두수는 양돈농가가 3만4천호로 가장 많고, 다음 양계농가 1만3천호, 소사육농가 1만2천호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의 마리수는 92년 9월말 이후 1년 동안 소가 33만2천두(13.2%), 돼지가 33만4천두(5.9%)로 각각 증가하여 사육두수는 줄고 사육마리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육계와 산란계 등 닭사육마리수는 92년 9월말 이후 1년 동안 1백만1천수가 감소하여 소, 돼지, 사육마리수의 증가추세와 대조를 보였다.

주요가축사육두수의 감소추세가 93년도에도 지속된 것은 국내축산여건 악화속에 축산물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93년 9월말 현재 본도 가축사육두수와 두수를 살펴보면 한우우 4천6백49호에서 3만6천3백13두, 젖소 1백4호3천2백37두, 돼지 5백18호 16만7천2백17두, 닭 9백69호 93만4백22수, 토끼23호 1천2백63두, 산양 3백99호 7천6백77두, 면양 3호 8백17두, 사슴 50호 8백37두를 사육하고 있다.

韓·美 양국은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이전 기간동안 수입쿼터를 95년 12만3천톤, 96년 14만6천톤, 97년 16만7천톤, 98년 18만6천톤, 99년 20만6천톤, 2천년 22만5천톤으로 결정했다. 급변도 수입쿼터는 지난해 6월 韓·美 쇠고기 협상에서 타결된대로 10만6천톤이 적용된다.

유제품은 가공치즈와 조제분유가 40%, 유장분말은 99%의 싹들 관세가 부과되면서 95년 완전수입 자유화가 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은 오는 95년부터 일정량의 쿼터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부분개방을 거쳐 오는 97년 7월부터 완전수입자유

화 된다.

돼지고기는 95년 2만1천9백30톤, 96년 2만9천2백40톤, 97년 상반기 1만8천2백75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한 후 97년 7월부터 20%인 양허관세를 3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닭고기는 95년 7천7백톤, 96년 1만4백톤, 97년 상반기 6천5백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한 후 97년 7월부터 20%인 현행관세를 30%로 상향조정해 완전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원의 분석에 따르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95년부터 2천년까지 6년간 축산농가 피해액은 2조2천3백43억원으로 팔 다음으로 피해액을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방추세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산업 발전대책으로는 우선 가축단위경영규모의 전입화 및 정예축산농가를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축개량, 사양관리 등 축산기술개발 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이뤄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통시설근대화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산지에 축산물 보관장 및 부분육가공공장을 건설하고 도축장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인 유통과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 정책으로 품질을

다른 축산물 거래와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가격안정제도의 정비로 생산 및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꾀하고 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대책 강구로 축산공해를 최소화하며 개방확대에 따른 축산물위생과 동물검역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한편 일정수준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통상협력의 강화와 다각적인 국내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으뜸가는 전략은 대학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려면 먼저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세계화된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요 사람은 대학이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인들의 의식전환은 물론 대학인 스스로의 반성과 자기혁신의 필요성도 시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을 국제화기제로 만들며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 제1의 생존전략이다.

제주의 축산인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무책임주의에서 책임주의로, 무경쟁시대에서 경쟁시대로, 경쟁력은 곧 기술임을 인식하며 잡초체질로 개방화에 정면 승부를 걸러고 변화하고 있다. 이에 產學研官이 굳게 뭉쳐야한다. 우리에게 지금이 중요하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때쯤이면, 내가 알았고 나를 스쳐갔고
나로 하여금 스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리목 넓은 터 한자리에 모아
모닥불 피워놓고 정답을 나누고 싶소.
P.S 다들 어떻게들 살아가고 있소?

GOLDEN DEW

골든·듀 제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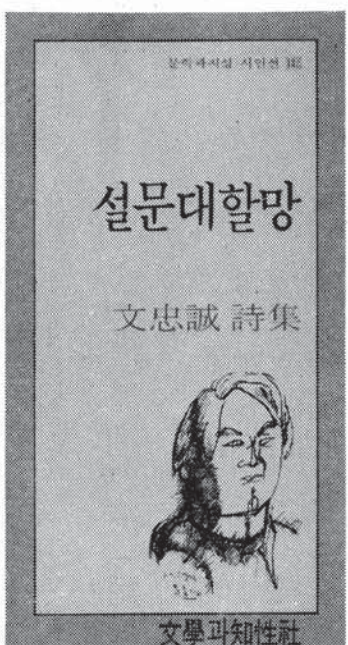
청성로 구·제일극장 맞은편

TEL. 58-1230

문학과 지성 시인전 132

설문대할망

文忠誠 詩集



아무리 변방에 살고 있지만, 내게도 '80년 대는 참으로 암울했다. 거머리가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듯 내 고뇌에 달라붙어 떨어질 켜새도 없이 내 상상 세계를 파괴하며 똑같은 꿈을 꾸게 했던 것들—나는 그 시대적 상황에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나는 이 꿈에서 서서히 이제야 깨어나고 있다.

—自序 중에서—

할락산 깊은 한숨 소리에 아스라이/할락산이 되어 감시나
하얗게/천지가 하얗게/어린 시절 눈싸움 하듯/우리들 새
하얀 눈들 세상 만들었나

*할락산은 제주 토박이 말로 '漢嶽山'

—漢嶽山에 올린 사나이들 중에서—

文學과知性社/3,000원

월드컴퓨터학원

TEL. 52-3321
56-3321

월드컴퓨터

TEL. 52-9120
22-3536

FAX. 57-6878

□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출입기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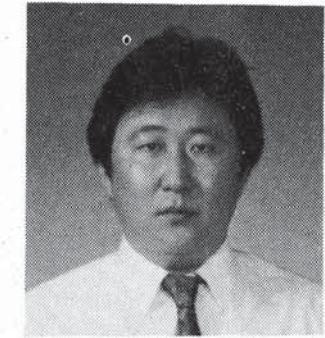
열심히 노력 하는자가 우대받는 풍토조성 인재를 키웠으면

국제화와 개방-정보-다원화로 통칭되고 있는 21세기의 변모사회에 濟州大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중립대학으로서의 제자리를 잡아야 나갈까.

不惑을 넘어서 濟州大가 오는 95년부터 점차적으로 덕질 교육개방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경쟁체제의 도입을 전제한 대학개혁등의 방향등을 고려할때 앞으로 산적인 학내의 각종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50만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 인재배출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濟州大의 자율적 개혁과 내부변화를 통해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갖춰 제2의 도약을 위한 국제화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대학구성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최근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분위기가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濟州大의 개혁작업은 제자리를 걸으며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로인해 대학사회가 변화를 기피하고 학계가 개혁을 꺼려하는



강태욱기자-한라일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 濟州大가 21세기를 대비, 올해부터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 우선 대학의 양적인 팽창이다. 타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濟州大도 지금까지 저마다 다양한 학과로 백화점식 '구색' 갖추기에만 급급했을 뿐 특정학과나 단과대학의 집중육성에는 소홀함이 있다. 즉 대학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재

정난으로 제몫마저 가누지못하게 될때 대학으로서의 특정학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양·질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다원-다양화라는 현대 사회와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전제로 濟州大의 이념과 지역·교육환경특성에 맞춰 전문화와 기능분담을 꾀한 특성있는 대학과 학과를 집중육성하는것이 대학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제화 정보화 추세가 날이 가속화 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질적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대학의 양적팽창은 더이상 국제경쟁사회의 인력수용에 부응할 수 없기때문이다.

두번째로 간관은 거창한 반면 내용은 빈약한 대학연구이다. 현재 濟州大에는 13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나 2개소를 제외한 모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의 부재와 연구활동지원인력부족등으로 대학연구중추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전임제 구현(전임연구교수·포스트 닥·연구원)을 도입해 연구결과의 공

개와 교수의 승진·임용심사에 반영하는 등 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로 대학교육의 질적수준과 직결되는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의 연구·강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연구하는 교수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밖에 학생들이 입학만하면 공부하지않아도 곧 졸업이라는 학문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쇠퇴와 함께 학점관리의 엄정성과 졸업 논문 및 학위취득사제도를 강화해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바라지고 있다. 또 대학행정도 권위주의를 청산, 자율의 풍토를 정착시켜 대학에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학내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특히 제도를 뒷받침할 '발전기금'조성에 총장의 경영자적 발휘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면서 모금사업도 범대학적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대학교육의 질적도약기반 구축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올해는 濟州大의 교수와 학생·행정관계자가 혼연일체가 돼 자율적개혁과 외부변화등의 지구 노력을 경주해 21세기를 향한 경쟁력을 갖춘 대내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기위해 첫발 내디딜 시점이 아닐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끌어주는 공동체의식 되살려야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건만 우리는 유독 1월1일의 그것에는 큰 의미를 둔다.

어제에 이은 오늘이라는 사실보다는 한해가 시작된다는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술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우리네가 누적된 잘못을 과거라는 단어속에 묻은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기준점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86년 어로학과를 졸업하고 7년 후에 제민일보 기자로서 제주대를 방문할 동안 아라캤퍼스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학생들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합때가 돼서야 새벽부터 들려들던 '철새들'로 복귀하다가 시험이 끝날과 동시에 적막한만이 감돌던 濟州大 도서관이 방학인데도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찬다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변화다.

그것도 '발등의 불'인 취직을 위해 수험준비하는 4학년이아 당연한 것이겠지만 1~3학년 학생들도 도서관을 찾아 몇년 후의 냉정한 현실을 미리부터 대비하는 모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대학이라는 점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많았다.

첫째, 어느 학생의 주변처럼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된 학우가 없다는 것이다.

즉 기득권층의 폐해인 이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에 젖어 자신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경쟁자로만 여기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있을지언정 서로 마음을 열고 그것을 공유할 친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치열한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가장 큰 잘못이 있겠지만, 대학은 대학이지 아직 사회가 아니다.

자유롭고 열린 공간인 대학에서 4년간의 젊음을 투자하며 얻어야 할 것은 학문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다.

바라고 싶은 것은 '학우'를 1백m 달리기 출발선상에서 선 경쟁자로 보지 말고 내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하다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때 내손을 잡아 이끌어 주며 같이 달려줄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넷째, 濟州大가 대내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다하고 있는나 하는 문제다.

얼마전 濟州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감귤수입개방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학생·교수할 것없이 濟州大 구성원 모두가 미온적이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말고사라는 틀속에 스스로 침잠, 찬바람을 가르며 일부 학우들이 절규한 '감귤수입개방 절대반대'의 목소리에 등을 돌려버렸고 교수들은 감귤수입이 제주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수입반대 성명서'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였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문제 도출의 목적은 시정과 발전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가지 대학내 문제점과 아울러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공동체의식의 상실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를 되찾기위한 '나' 스스로의 반성'이다.

'우리'가 사라지고 '자신'만이 강조되고 이기주의적 이기를 강요하는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캠퍼스내에서 마치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삭막한 일이지, 학생·교수·직원 할 것없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사는 사회'라는 공동체의식을 찾기위한 진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제반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여겨진다.

주인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소속감은 조직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뿐만 아니라 이의 결여는 조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회관이나 강의실 바닥등에 떨어진 점과 버려진 담배꽂초, 그

둘째, 대학이 지식전달이라는 기능에만 치우쳐 '학사'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전락, 사제간 인간적인 정(情)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우려다.

그 결과 대학은 보다 풍부한 인간적 공동체감이라는 학점과 지식 전달이라는 서로의 목적만으로 결합된 고독한 군중만을 양산하고 있는 느낌이며,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위함시도도 교수-학생간 대화창구와 기호의 확대를 주문해 본다.

셋째, 대학구성원들의 소속감 결여를 들 수 있다. 주인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소속감은 조직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뿐만 아니라 이의 결여는 조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회관이나 강의실 바닥등에 떨어진 점과 버려진 담배꽂초, 그

제주민의 꿈과 잔치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도서출판 제주문화에서 발간됐다.

우리지역의 민요·언어·민속·설화를 알기 쉽게 쓴 이번 책은 △제1장 5백년이나 한꺼번에 흐르는 제주의 저력 △제2장 풍성한 민요와 본풀이 △제3장 제주해녀 △제4장 돌하르방 △제5장 제주풍속과 민속마을 △제6장

제주민의 꿈과 잔치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도서출판 제주문화에서 발간됐다.

이 책은 제주민요에 대한 분석과 돌하르방의 기능 및 역사적 유래, 임신부가 지켜야할 금기등 대대로 내려온 제주 풍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책이 제주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바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돈동문은 현재 민요학회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濟州대 발전을 위한 과제. 지난해 문민정부가 들어서 이후 붓물터지듯 나오는 개혁의 파고속에서 대학도 몇차례의 쓰디쓴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한편 그 개혁의 소용돌이는 부패된 과거의 부산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외에도 21C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필수 불가결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혁의 대세는 치열해지는 국제경쟁하에서 살아 남기위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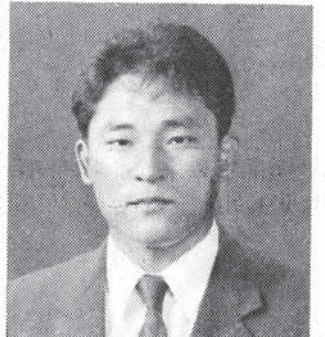
최근들어 각 대학들도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아슬아슬대로 다소의 개혁과정을 거친후 이제 21C

를 앞두고 '대학발전'이라는 지상명제앞에 무성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발전이 최고의 구호이고 정책이며 대학내부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만능의 선이라 할 정도로 그 논의는 그칠새가 없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기금'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濟州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개교 40주년이 되는 92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의 '대학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를 달



최일신기자-제주신문

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더우기 지난해 9월에는 제4대 高長權총장이 취임하면서 재임중 발전기금 50억원, 학술연구기금 1백억원 마련을 공약하고 나섰다.

특히 高총장은 대학내부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조용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약속해 새로

운 濟州대학의 면모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취임초기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학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죽어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濟州대의 최대 현안문제인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가장 중요한 대학내 3주체의 연대감이 미흡할 뿐더러 서로 불신과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발전을 위한 그간의 여러조치들이 단순히 구두선으로만 끝났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바로 이것이 濟州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저해요인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할 주도적 역할을 학교당국이 이끌어내야 한다.

캠퍼스의 넓이나 시설정도만 가지고 대학수준을 논할때는 지났다. 거창한 사업계획만이 21C국제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이전에 대학내 고질적인 문제와 현안문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류에 따른 맹목적인 교통분담의 주입(?)보다는 교수·직원·학생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통분담을 유도해내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력 내지 유인책 마련이 앞서야 한다.

다소 열악한 여건이지만 잘못된 점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있게 드러내 공유하도록 하고 최상의 교육,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교수·직원·학생들도 그간의 편협된 대학 캠퍼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당부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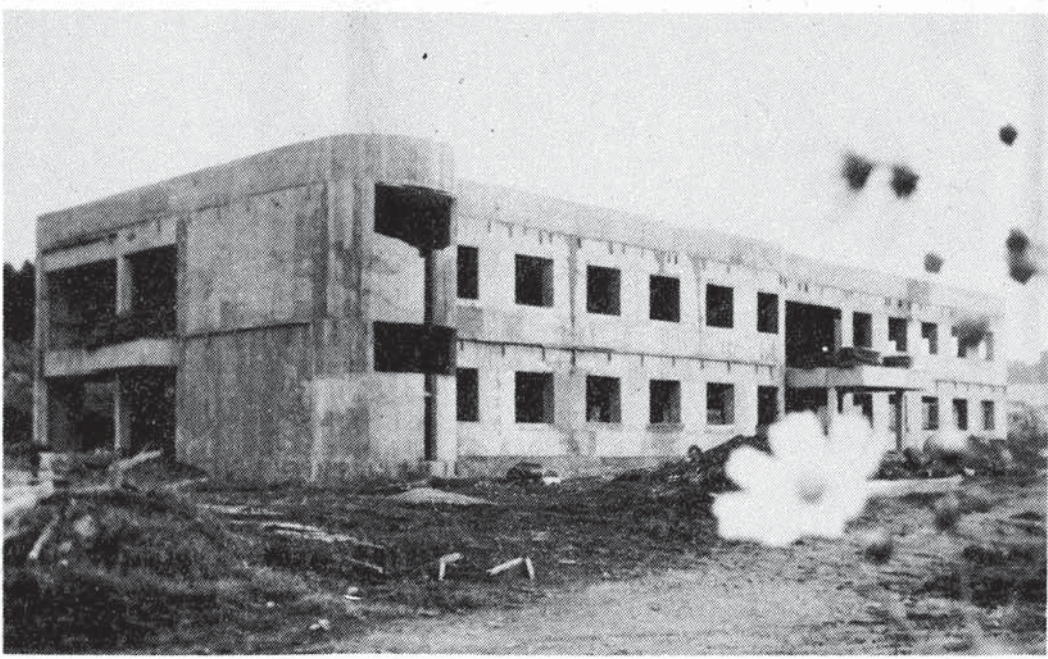
대학경영의 최대의 수혜자중의 하나인 교수들은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통해 濟州대에 대한 자부심과 濟州대학생에 대한 애정을 바란다.

교수와 학생들의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해주어야 할 직원들도 전문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학생들도 또한 월평균, 아니 월년평균 독서량만이라도 한번 되짚어보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시한번 새겨 보기를 당부한다.

이 모든것이 濟州대 모든 구성원과 濟州대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임을 확신한다.

謹賀新年

보다 나은 제주건설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世一綜合建設株式會社에서 신축중인 동물병원 전경.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제주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살기좋은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世一人'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世一綜合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徐榮珍

濟州市 蓮洞 314-130番地
TEL 46-9211~3 FAX 46-9210

2,160명모집에 5,014명 지원 면접시험에 지원자의 3.5% 결시 올해도 사범대 경쟁률 가장 낮아

94학년도 신입생 면접고사와 교직성 및 인성검사(사범대 지원자)가 지난 1월7일 각 단과대별로 제1지망학과 지정교사실에서 실시됐다.

이 날 면접시험에는 농과대에서 48명이 결시하는 등 전체 지원자 5천14명중 1백75명이 결시, 지난해 2.68%보다 다소 높은 3.5%의 결시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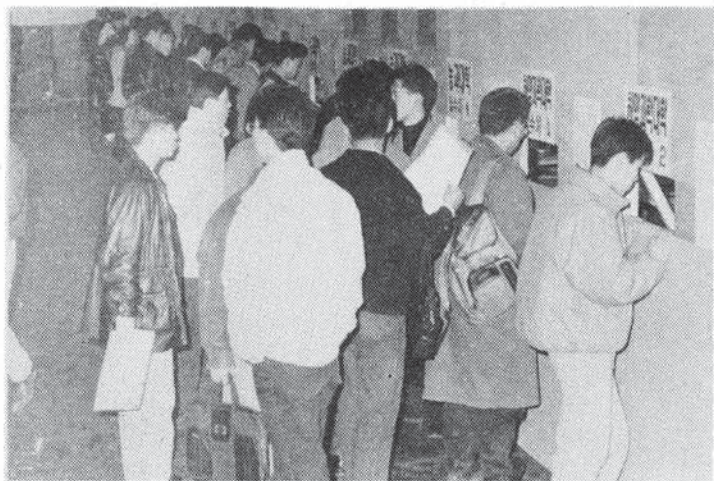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예능계열은 10일부터 13일 기간중 1일간씩 학과별로 실기고사를 치렀고 체육계의 경우는 10~11일까지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원서접수결과 우리학교는 8개 단과대학 57개학과 2천1백60명 모집정원에 5천14명이 지원, 93학년도 역시 1천9백90명 정원에 5천7백23명이 지원 2.88대1을 기록했던 것에 훨씬 밀도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마감된 원서접수에서 우리 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의 가정관리학과가 30명정원에 1백34명이 몰려 4.47대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고 식품영양학과가 40명정원에 1백72명이 지원, 4.3대1로 두번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입시에서는 신선헌학과인 관광개발학과와 전산통계학과가 각각 2.63대1, 1.87대1에 그쳐 지금까지 지원자들의 인기학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던 신선헌학과에 대한 지원자가 다소 줄어들었다.

각 단과대학별 지원현황을 보면 농과대학이 6개학과 2백40명모집에 7백30명이 지원, 3.04대1로 지난해 4.34대1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난해 1.65대1의 사범대학은 7개학과 1백40명 정원에 2백38명만이 원서를 제출해 다시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우리대학 94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모습.

이밖에 단과대학은 △해양학과대학 2.77대1 △자연과학대학 2.7대1 △경상대학 2.21대1 △공과대학 2.4대1 △인문대학 2.14대1 △법정대학 1.79대1등의 순으로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한편, 1월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석합격자는 5백점만점에 총점 453.8점을 얻은 서귀포고교 오현희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학과 심포지엄 개최
‘연근해해역의 환경...’주제

우리대학교 해양연구소(소장 이기원 중식학과 교수)는 지난 12월 10일 함석소세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근해 해역의 환경과 생물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해양과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와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었던

이번 심포지엄은 수·해양의 산학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윤양호(여수 수산대)=제주 연근해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계절변동과 기초생산 △서해협(전남대)=제주 연근해 해역의 동물플랑크톤에 관하여 △장창익(군산대)=Changes in Fish Abundance and species Dominance in the Yellow sea △유신재(한국 해양연구소)=해역원격탐사에 의한 제주연근해 해역의 생태학적 특성 △김동수(부산수산대)=어류의 유전종속과 양식산업의 응용에 관하여 △박인석(한국 해양연구소)=염색체조작에 의한 어류의 생물공학 △이영돈(우리대

학 해양연구소)=자성선속어의 성 전환.

박물관대학 수료식 거행

우리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창규 사학과 부교수)이 제주시와 공동 주관한 제1기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수료식이 지난 12월18일 우당 도서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모두 71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시민강좌에 개근한 제주시 일도2동 이유헌할아버지 등 4명이 김태환제주시장상을, 이창규박물관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박물관대학은 제주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해 인류학, 고고학 등 5개 분야를 개설, 지난해 3월6일부터 우당도서관에서 강의를 해왔다.

김미경양 금상 수상
제24회 전국대학미전서



김미경(산업디자인, 4)학우가 작년 11월 17일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제24회 전국대학미전에서 ‘MAMMY’란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김미경학우는 “부상으로 독일, 일본 등을 돌리보게 된다. 한편, 산업디자인과 학우들은 대한산업미술대전, 전국대학미전 등의 전국 수준의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해오고 있다.”

대학원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9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모집요강이 각 대학원별로 발표됐다. 모집요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모집과정 및 학과(가)석사과정(각 학과 약간명)=국어국문, 영어영문, 경영, 경제, 법, 농, 원예, 축산, 농화, 수의, 나)박사과정(각 학과 약간명)=국어국문, 경영,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물리, 식품, 공생, 기계공 △전형방법(가)석사과정=전공, 영어, 기술나)박사과정=전공, 영어, 예술어(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등) 단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지원자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아간) △모집과정=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약간명 △모집전공=교육행정, 상담심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국민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체육교육, 미술

교육 △전형방법=전공, 영어, 면접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면접 △경영대학원 △모집과정=경영학 석사학위과정(아간)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회계학, 관광경영, 무역 7개 전공 각 약간명 △전형방법=영어, 경영학, 면접

▲최고경영자과정(아간) △모집인원=○○명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행정대학원 △모집과정=석사과정 약간명 △모집학과=행정학과(일반행정, 지방자치, 사법행정 전공) △전형방법=영어, 행정학, 면접 △특별전형=행정학, 면접

▲고급관리자과정 △모집인원=○○명 △지원자격=국가 및 지방고급공무원(사무관급 이상), 군·경찰간부(경위급 이상) 공·사기업체 간부, 정당 등 각종 사회단체의 간부, 기타 독능자 및 지역지도자.

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 정리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n=3일 때 처음으로 오일러에 의해 증명되었는데(1770년), 그 증명은 일부분 불완전하여 완전한 증명을 위해서는 19세기의 ‘이데알(ideal)론’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n=4인 경우는 페르마에 의해, n=5인 경우는 프랑드르와 디리클레에 의해(1825년), n=7인 경우는 라베에 의해(1839년), n=14인 경우는 디리클레에 의해 해결되었다.

페르마의 부정방정식 $x^n + y^n = z^n$ (n≥3)에서 n은 거듭제곱과 같거나 또는 홀수인 소수 n을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페르마의 대정리는 “홀수인 소수 p에 대하여 $x^p + y^p = z^p$ 는 양의 정수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귀착된다. 아벨은 이러한 변형을 이용하여 이 정리를 연구하였다. 특히 19세기 초 쿠머(Kummer)는 대수적 정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하였는데 큰 오류가 있음이 지적된 후, 이 개념에 새로운 개념인 이데알수를 p가 정칙인 소수(regular prime)일 때 페르마의 부정방정식은 정수의 해가 없음을 증명하였다(1850년) 이외에 디리클레(1839년), Vandiver(1929년), Vandiver와 모리시마(1934년)에 의해 부분적으로 페르마의 대정리는 해결되어 왔다. 컴퓨터가 등장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이 문제의

인터뷰 고태홍 사범대 신입학장

비사범계 교직이수제도 폐지돼야

지난 12월1일자로 제7대 사범대학장에 임명된 고태홍(영어교육과 교수)학장을 만나 간략하게 취임소감 및 사범대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범대 운영방안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덕·체를 겸비한 전문인적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성과 직업성을 고려한 교과목을 적절히 통합·조정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을 통하여 교수, 학생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날 사범대학의 당면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사범대가 직면한 문제와 개선방향은?

—가장 큰 문제가 교사자격취득이다. 국·공립, 사립중등학교를 통틀어 한 해 필요한 교원수는 약 5천명에 불과한데 반해, 한해 배출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만7천여명이 돼, 만성적 교사 적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범대생이라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고시를



치루고 합격한 학생에게만 자격증을 주고 반드시 발령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장학제도의 확대, 교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모색해야 한다.

△사범대생들의 취업대책은?

—교과과정속에 취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과목을 적절히 배열해 나갈데지만 교사공개임용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교사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개혁이 우선되지 않는 한 사범대학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비사범계학과와의 교직과정 이수에 대한 견해는?

—교사가 하는 일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교육이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일반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나중에 ‘교사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사범대생들과 구별해야 하고, 비사범계학과와의 교직과정이수제도 조정·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수,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믿음으로 사제간의 정을 회복하고 대학의 본질적 발전, 즉 교육과 연구를 위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대학교육을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

차량통제 캠페인 어느정도 성과거둬

대다수의 교직원 차량10부제 운영등에 협조

학내 진입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 소음공해,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고 10부제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 쾌적한 대학환경 조성을 위한 학내 진입차량통제에 지난 12월4일부터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진입차량통제를 위해 작년 12월1일까지 전교직원, 학생, 상주업무차량에 대해 출입증을 발급했으며 각 차량을 학내 출입 및 교내 주차차내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출입증을 게시(출입증 없는 차량은 일단 정지후 수위실 직원이 확인 통제)토록 하고 있다.

외부차량의 경우는 수위실에 신분증을 임시 보관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진입하고 있으며 10부제 정착을 위해 10부제 해당차량은 수위실직원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총무과에서는 출입차량통제 계도기간을 통해 학내 차량수가 파악되고 10부제 정착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교직원들이 10부제에 해당할 경우 교수아파트에 차를 임시로 주차시켜놓고 등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 10부제를 지키는 차량은 50~60%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대학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교직원 4백56대, 학생 2백91대, 대학원생 1백45대, 상주업무차 21대로 모두 9백1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증에 새겨진 교내 운전석에 대한 문안으로 교통질서에 대한 홍보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학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소음공해, 교통정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이번 캠페인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 정문 수위실의 충원, 수위실 위치변경, 학교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제고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의 경우 교문밖에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으며 현재 학내 주차장은 2백53대의 주차공간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및 학생이 등록한 9백13대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시설과에 의하면 현재 공사중인 외국어교육관, 동물병원등 4개동

의 공사가 완료되면 1백22대분의 주차장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은 2백53대분의 현재 주차장과 합해봐도 학내등록 차량의 절반밖에 주차시킬 수 없다. 외부 출입차량까지 감안했을 때 주차공간 확보는 절박한 현실이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 소문동장 뒤편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학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소음공해, 교통정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대학교 수위실원은 모두 5명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아주 부족한 인원 일뿐만 아니라 야간당직·주변야간 산물 예방순찰, 학내 경비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정문에서 하루종일 진입차량을 확인·안내하는 것은 무리로 여겨지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수위 5명 경비 14명, 고려대가 수위 20명 경비40명, 전북대·충남대가 각각 17명 32명의 수위를 두고 있는 상황을 볼때 학교당국에서는 수위실 인원을 적정수준에서 하루빨리 보충해야 한다.

또한 정문 수위실이 차량이 진입하는 정문입구 서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위실은 차량의 출구쪽인 동쪽에 위치해 있어 출입차량 통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위실 위치변경신속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아울러 학교당국은 정책적 측면에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 그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고 동시에 앞서 제시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한편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10부제 운영제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0부제가 폐지되었을 경우 학내진입차량통제에 실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교당국에서는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것이다. [오유선기자]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투쟁 방향 발표

제6기 제총협 준비위

제6기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임시상임의장 홍진혁 우리대학교 94년 총학생회장 이하 제총협)는 지난 12월21일 임시체계를 발족한 후 오전 9시30분부터 우리대학 총학생회사무실에서 도내 일간지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투쟁방향을 발표했다.

제총협산하 도내 4개대학 94년도 총학생회장들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6기 제총협 임시상임의장에 만장일치로 우리대학교

94년 총학생회장 홍진혁군이 선출됐음을 발표하고 △제총협을 보다 강화, 발전시킨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제총협’건설에 열정을 다할 것을 밝혔다.

제6기 제총협건설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UR협상안 국회비준 거부투쟁과 △4월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UR협상안 남치기 통과에 대응한 국회의원 소환투쟁 △범도민 서명운동투쟁 건설해 수입개방저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과·학·이·야·기

페르마의 대정리

1637년 프랑스 수학자 페르마(pierre de Fermat, 1601~1665)가 “n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x^n + y^n = z^n$ 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예상(conjecture)을 한 이후로, 이는 페르마의 대정리 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는 수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x^n + y^n = z^n$ (n≥3)을 페르마의 부정방정식이라 하며,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한다는 것은 이 부정방정식이 자연수해 x, y, z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페르마는 또한 “p가 소수이고 a와 p가 서로소일 때, $a^{p-1} \equiv 1 \pmod{p}$ 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페르마의 소정리도 예상하여 이 소정리에 대한 증명은 라이프니츠에 의해 원고로 남겨지고, 1737년에 오일러에 의해 다른 초등적인 증명법이 출판되었다. 페르마는 해석기하학을 창시하고 미적분학의 선구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빛의 통과 경로에 대한 ‘페르마의 원리’를 처음으로 밝힌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다.

3백50년 이상 풀리지 않은 수학의 난제중 난제였던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했다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1993년) 6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뉴튼수리과학 연구소에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앤드루 와일즈(Andrew Wiles)교수는 “타원곡선, 모듈러 형식 그리고 갈로와 표현”(Elliptic curves, modular forms and Galois representations)이라는 강연에서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일간에 걸친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고, 마지막 강연에서는 약 60명 이상의 수학자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을 상냥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자(우비)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또한 이 증명 사실을 미국 뉴욕타임지는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으며, 타임·뉴스위크지도 곧바로 같은 내용을 화제기사로 다루었다. 이처럼 수학적 문제의 해결을 기사화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878년 6월 영국의 수학자 A. Cayley에 의해 제기된 사육각제(모든 지도는 4색으로 식별가능



하다는 문제)가 100년만인 1976년 7월21일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K. Appel과 W. Haken 두 교수에 의해 컴퓨터의 힘을 빌려 해결되었을 때도 뉴욕타임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페르마의 대정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즉 $x^2 + y^2 = z^2$)에서 한스럽게 제기된 예상이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5이고 나머지 두변의 길이가 각각 3과 4인 경우 $3^2 + 4^2 = 5^2$ 또는 빗변의 길이가 13이고 나머지 두변의 길이가 각각 5와 12인 경우 $5^2 + 12^2 = 13^2$ 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는 존재한다. 그러나 n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x^n + y^n = z^n$ 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는 찾을 수 없다.

수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학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페르마의 대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유명한 수학자를 포

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 정리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n=3일 때 처음으로 오일러에 의해 증명되었는데(1770년), 그 증명은 일부분 불완전하여 완전한 증명을 위해서는 19세기의 ‘이데알(ideal)론’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n=4인 경우는 페르마에 의해, n=5인 경우는 프랑드르와 디리클레에 의해(1825년), n=7인 경우는 라베에 의해(1839년), n=14인 경우는 디리클레에 의해 해결되었다.

페르마의 부정방정식 $x^n + y^n = z^n$ (n≥3)에서 n은 거듭제곱과 같거나 또는 홀수인 소수 n을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페르마의 대정리는 “홀수인 소수 p에 대하여 $x^p + y^p = z^p$ 는 양의 정수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귀착된다. 아벨은 이러한 변형을 이용하여 이 정리를 연구하였다. 특히 19세기 초 쿠머(Kummer)는 대수적 정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하였는데 큰 오류가 있음이 지적된 후, 이 개념에 새로운 개념인 이데알수를 p가 정칙인 소수(regular prime)일 때 페르마의 부정방정식은 정수의 해가 없음을 증명하였다(1850년) 이외에 디리클레(1839년), Vandiver(1929년), Vandiver와 모리시마(1934년)에 의해 부분적으로 페르마의 대정리는 해결되어 왔다. 컴퓨터가 등장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이 문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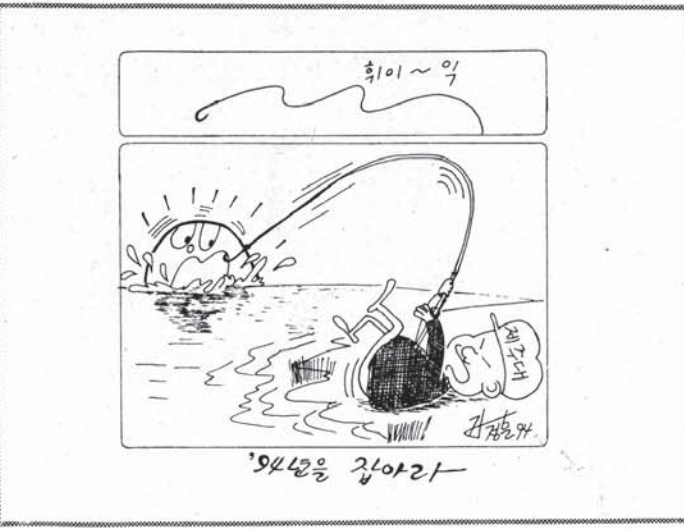
해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페르마의 예상은 제기된 후 프랑스 아카데미는 이 문제를 푸는데 1815년과 1860년 두차례 황금메달, 3백프랑이라는 당시로는 거액을 현상금으로 걸었으며, 1908년에는 독일 Gottingen 과학연구소는 그 완전한 증명을 최초로 완성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0만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을 걸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아마추어 수학자에 의한 부정확한 증명의 대홍수가 일어났다. 실제로 1908년에서부터 1912년까지 사이에 1,000가지의 페르마의 정리에 관한 틀린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와일즈 교수는 1954년에 제기된 “모든 Q상에 정의된 타원곡선은 모듈러 곡선(modular)이다”라는 다니야마(Taniyama)의 가설(또는 Taniyama-Weil의 가설)이 성립하면 페르마의 대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1986년의 Ribet의 논문으로 Taniyama의 가설 증명이 불투명하였다. 사실 페르마의 대정리와 Taniyama의 미해결 문제 사이의 관계는 1985년에 G. Frey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번 와일즈 교수가 증명한 것은 반단순 타원곡선(semisimple elliptic curve)에 대하여 Taniyama의 가설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페르마의 대정리는 수많은 수학자들의 탐구를 자극해 수학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이 대정리의 해법을 구하는 연구는 작도불가능한 고대 기하학의 3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초래한 성과보다 훨씬 뛰어난 부산물을 수학계에 초래했다고 말한다. 와일즈 교수의 성공도 사실은 다른 수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새로운 수학적문제에 기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와일즈 교수는 산발적으로 발표된 여러 이론들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정리하고 종합해 페르마 정리의 증명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대정리의 증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정열적인 노력에 대하여 다시한번 깨닫게 한다.

消大漫評



◇대학생활 1년을 마치고

잘못을 보면 분개할줄 알아야
'이게 대학문화인가?'

1993년은 적어도 대학생이 된 나에게는 특별한 해였다.

지난 3월, 입학하던 날을 떠올리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마냥 꿈에 부풀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즐거운 예감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찌하면 나는 대학이란 곳에 대해 너무 크게 희망했는지 모른다. 어른들은 모두 "지금은 안된다.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으니까.

하지만, 대학1년을 보낸 지금, 대학에서의 기대와 예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나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입학하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그렇다. 일주일도 아니고 겨우 며칠이 지난 후부터 주위 친구들은 모두들 왜 이렇게 심심하냐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공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 저기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나마 하는 일이라곤 동아리 탐방, 그것도 이내 어색해지고 서서히 실망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워 가는 것이 술이다. 여기저기 끌려 다니다 매일같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아, 이게 대학 문화구나.' 그리고 시험 치면서 더 적을 데가 없을 만큼 까맣게 낙서가 된 책상과 벽들을 보며 '아, 이게 대학 문화구나'했다.

"책을 모조리 읽을 필요가 없다. 적당히 읽어서 말만 만들면 A"이다. 시험걱정 하지마라. 웬만 하면 F 안준다. 만약 주더라도 가서 사정하면 고쳐주게 되어 있다."

이런 선배의 말에 '대학의 자유란 이런 거구나' 느꼈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대학 축제, 바로 대동제에서 맛보았던 그 짜릿한 한탕주의(?)야말로 나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전야제를 위한 축제, 가장 힘들여 준비한 학술제는 뒷전이고 놀이판에는 주인이 없었다. 그저 남의 집에 잠시 와서 놀다 가는 듯한 인상이었다. 술 마시며 흥들고 노래 부르는 놀이 문화에 익숙한 까닭일 것이다. 전야제 다음 날 학교를 장식했던 쓰레기와 깨진 술병들. 대학 1년의 첫 축제 치고 침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대학이란 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대리 출석, 컨닝,

휴강은 '대학인간의 환희'였고 스틸이었다. 민주 정부를 외치며 팔을 흔들기에만 바빴지 몇백명씩 한꺼번에 받는 수업인지 강연인지 모를 강의 방식에 대해서도, 강의실로 갈 자리가 옮겨 다니며 시험을 늦게 친 사태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험기간 중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12시까지만이라도 가로등을 일부 켜 줄수 있는 배려마저 해주지 않는 학교측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개할 줄을 몰랐다.

선배들은 "배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일이 있다"고만 얘기한다. 비만 오면 신경통이 도지듯이 치유할 수 없는 자연스런 고통으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새해가 되었다. 1994년 또한 93년과 똑 같은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야 하는가! 진정한 대학 문화와 대학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정체는 퇴보라 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것도 열심히 나아가는 것만이 발전인 것이다.

(사회학과 1년 김진희)

동아일보 '94신춘문예' 당선작

거듭나기

김지연 (국문 90년졸)

보일듯 말듯한 가슴아래 손가락을 넣어 본다
청동조각상이 수줍게 고개 든 순간
물결한, 어딘서가 심장이 만져질 듯 하다.

이상하다 조각상의 반질거리는 살갗에
눈감아 버린 나의 모습이 들여다 보인다.
巡禮者처럼 망연히
나는 조각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좁고 남루한 갈비뼈 근처
따스한 꽃들이 무더기로 피고,
꽃들이 잔잔히 흔들리면 언뜻 비취진 내가
가늘게 휘청거린다.
가만 바라 보면, 세밀한 혈관이 발밀을 적시고...

불현듯 내 몸을 밀어낸 것은
부술부술 내려 앉기 시작한 어둠이었을까
어둠이 내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웅성거림이 들리지만
손잡을 수 없다. 나는 닫혀 있다.

문득 알 수 없는 손이 다가와
내 가슴을 찬찬히 더듬고
쓰거운 피 스며들어,
마침내 사지가 고요히 풀려 흐를 때
저만치서 조각상이 꽃씨를 던진다.
스멀스멀 자라나는 잔뿌리...
오래 뿌리의 傳信에 귀기울이면 차츰
잘록해지는 허리에서 싹트줄만한 햇살이
환하게 새어 나오고 있다.

한라일보 '94신춘문예' 당선작

나의 주소

부유섭(국문 3)

바다로 가서 나는 나를 낳는다
붉은 펜을 든 나는 하늘에다
아무렇게나 손을 놓는다
등창 뜯은 바다가 역겹다
달리는 청년들은 칼을 들고 누구를
쫓고 있는 것인가, 나는 장마 뒤
황아리빛 바다를
나의 주소에 옮겨 심는다
어제는 많이 넓어진 정원에서
내 키를 넘는 나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자처럼 그들을 불러도 보았다
저 하늘 눈의 자식도 아니고
산 허벅지 위로 빨은 계곡의 자식도 아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나를 살고 있던 건
용암대지의 돌들이거나 할아버지가 키운
정원의 나무들이거나.
그때, 나는 바람을 데리고 놀았다.
바람 속에서 흔들려 온 구름의 아이들도
정원의 잎사귀에 앉아 쉬고 있을 때면
나는 이곳에 이르러 말을 눈으로 듣는다
가끔 세상의 크기를 의심해서 내 눈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일도 이곳에서의 일이다
눈의 안쪽을 생각한게 언제부터였나
시대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세상을
후회한 일도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아마 눈의 안쪽에 자리잡은
기억의 祖力때문이었지 나의 주소

권하고 싶은 책 「원자력제국」-R.Jungk지음

원자력의 실상과 그 위험성 폭로

핵에너지는 전쟁과 평화의 두 얼굴을 지닌다. 흔히들 이러한 핵에너지의 꽃과 가시를 한줄기에 지닌 장미에 비유하여 그 양면성을 표현한다. 보통 핵에너지가 전쟁을 위한 살상무기로 사용되면 가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면 장미꽃으로 비유한다. 이러한 원자력에너지는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 8년 뒤인 1953년에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설 이후 장미꽃으로 포장된 채 세계 각국에 급속한 속도로 원자로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전용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경제성, 마지않아 고갈될 화석연료의 한계성, 화석연료의 환경오염 특히 다량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들어 그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만일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증식로와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운반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폐기물처리 문제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한계성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에 따른 안전성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에너지는 인류가 탄생시킨 기술문명의 탕아가 되어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하는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몽크는 이 책에서 아직 그 누구도 안전성을 자신할 수 없는 원자력의 실상을 몇몇 원자력 연구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실례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에 의한 환경파괴, 인간생명의 위협을 단순히 기술하기보다는 원자력의 존재로 인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원자력의 이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 억압하고 원자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제도가 초래하는 인간성의 상실 등을 몇몇 실례를 들어 지적함으로써 원자력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부각시키고,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창희 화학과 조교수

김지연동문·부유섭학우 등단

‘동아일보’ ‘한라일보’통해



◇부유섭학우

김지연(국문 90년 졸)동문과 부유섭(국문 3)학우가 '동아일보'와 '한라일보' 94년 신춘문예 시부분에 각각 당선, 등단했다.

김지연동문은 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거듭나기」로 당선됐는데 지난해에도 시 「뿌리에 관하여」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투고해 본선 최종심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탈락, 이번 두번째 응모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당선작은 자신의 육체를 조각상으로 객관화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성찰해 나가는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김동문은 93년 한라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유섭학우는 94년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나의 주소」로 당선됐는데 이 시는 풍부한 연상력과 진솔한 언어구사, 집중적인 사물인식태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그는 초승동인으로 활동중이다.

오영호동문 시조집

『풀잎만한 이유』

오영호(국어국문 70년 졸)동문의 첫번째 시조집 『풀잎만한 이유』가 동학시인선에서 출간됐다.

모두 5부로 나뉘어 「한라산정」 등 64편의 시를 실고 있는 이 시조집은 4·3의 한 굴절된 역사의 해 본선 최종심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탈락, 이번 두번째 응모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오영호동문은 1985년 「시조문장」 가을호에 「수선화」로 추천,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제주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동아일보 94신춘문예 당선소감

“당선소식을 듣는 순간 떨리는 기분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괜히 침착해지더군요.”

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 당선된 김지연(국어국문학과 90년졸·교육대학원졸)동문은 당선소식 들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김지연동문은 93년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 관하여」로 당선된데 이어 이번에 역시 시 「거듭나기」로 당선된 것이다.

당선작 「거듭나기」는 동생에게서 선물받은 청동조각상을 보다가 쓰게 됐다.

“사실 응모할 생각은 못했는데 고3 담임이자 학과 선배님이신 양영길선생님께서 응모할 것을 권유, 거기에서 힘을 얻어 응모하게 됐다”며 “제 실력이라기 보다는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된 것 같다”고 겸손해하는 그녀는 너무나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한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재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시를 쓰고 싶다는 그녀는 후배들에게 “모방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라”고 얘기해주고



◇김지연동문

싶었다.

이번 신춘문예에 당선이란 행운을 얻긴 했지만 학부시절에는 시가 갈피를 못잡고 방황했었다며 “그때 내가 쓴 습작들을 보면 유지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이후 시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힌다.

기형도시인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당선된 뒤 두려움과 함께 망막한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 는 책임감을 갖고 글을 써야 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의욕을 내보이기도.

내년쯤에는 자신의 시집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웅골찬 모습에서 앞으로 꾸준한 창작활동을 기대, 해본다.

【善】

새창터는 새창터만의
개성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우리는
1+1=2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깎습니다.

1 + 1 = 10

2만큼의 정보가 아닌
10만큼의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창터는 새창터만의
개성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